

[25 ~ 2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루는 양창곡이 벽성선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녀는 관청에서 불러서 가고 없었다. 양창곡은 무료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이제 올라가 보아야겠구나.’

그는 동자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기이한 꽃과 괴석이 곳곳에 널려 있고, 맑은 시내와 빼어난 봉우리는 골짜기마다 둘러싸여 있다. 양창곡은 경치를 따라서 그 근원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위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살 한 분이 나타났다. 그는 비단 가사를 입고 석장을 손에 들었으며, 꽃 같은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을 하고 단아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보살은 양창곡을 보더니 길게 읊을 하며 말했다.

“문창성은 그동안 별로 없으셨소?”

양창곡이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니,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홍란성은 어디 두고 제천선녀와 즐기시는 게요?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의 관음보살이외다. 옥황상제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무곡성의 병서(兵書)를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 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

말이 끝나자 석장을 들어 바위를 후려치면서 높은 소리로 말했다.

“돌아갈 길이 매우 바쁘니 빨리 돌아가시오.”

양창곡이 놀라서 깨니 한바탕 ㉠꿈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까처럼 바위 위에 앉아 있었지만, 단서(丹書) 한 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양창곡이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소매 속에 잘 갈무리하고 내려왔다. 다시 별당에 들렀지만 벽성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양창곡은 즉시 객관으로 돌아와 단서를 꺼내 보았다. 과연 천상 무곡성의 천문 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었다. 양창곡은 본래 총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보아서 깨닫겠는가.

상자 안에 넣어 두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벽성선이 두 여종을 데리고 달빛을 띠고 이르렀다. 그 아리따운 자태는 달나라 항아가 광한전에서 내려온 듯, 은하수에 직녀가 견우를 찾아온 듯하였다. 양창곡은 정신이 혼날리고 마음이 황홀하여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중략)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내 정말 무료하여 그대를 찾아가는 중인데,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벽성선 역시 웃으며 말했다.

“밤이 깊고 하늘은 개었으며, 달은 밝고 바람은 맑습니다. 객관 차가운 등불 아래 상공의 외로운 회포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양창곡이 흔쾌히 웃으며 함께 별당으로 갔다. 달을 마주하고 여러 잔을 마시는데, 벽성선이 술잔을 들고 갑자기 슬픈 빛을 띠는 것이었다.

양창곡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요?”

벽성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참을 있다가 대답을 했다.

“첩이 청루 생활 10년 동안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상공을 모시게 되어 울적한 심회를 위로할 수 있었지요. 물 위의 부평초 같은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한지라, 이제 밝은 달을 대하니 한번 등글어졌다 한번 이지러졌다 하는 ㉠ 저 달을 한스러워합니다.”

“그대는 내가 일찍 유배에서 돌아갈 것인지 늦게 돌아갈 것인지 어찌 알 수 있단 말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첩이 지난번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 꿈을 꾸었습니다. 상공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향해 가시더군요. 저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홀연 우렛소리가 크게 들리고 벼락이 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첩에게 불리하기는 하지만, 상공께선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양창곡이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 달 20일은 황상의 생신이오. 황태후께서는 황상을 위하여 매년 이날을 맞으면 방생지에 물고기를 풀어서 살려주고 천하에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지요. 그대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닌 듯싶소.”

그러자 벽성선이 더욱 놀라며 말했다.

“은혜로운 명령으로 씻어 낸다면 이 어찌 상공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뒷기약이 없을 것입니다만, 군자의 대범함으로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듣자오니, 남방에 어떤 새는 ‘난(鸞)’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짝이 아니면 울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들어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며 울다가 기운이 쇠진해져서 죽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비록 청루의 천한 인생이지만 제 짝을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공을 모시니 마치 꿈인 듯, 거울 속 그림자인 듯 황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번 날면서 울었으니 오늘 죽는다고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산 속에 종적을 감추고 스님이나 도사를 따라 자질구레한 모욕

을 면해 볼까 합니다.”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뜻을 알지만 그대는 내 뜻을 알지 못하는구려. 나는 이미 뜻을 정하였어요.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할 거요. 벽성산 머리의 ㉢ 둥근 달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도록 하여 평생토록 이지러지지 않겠소.”

벽성선이 고마워하면서 말했다.

“군자의 말씀은 천금과 같습니다. 첩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 남영로, 「옥루몽」 -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창곡은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 달밤에 벽성산을 올랐다.
- ② 양창곡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벽성선의 자태에 매료되었다.
- ③ 양창곡은 보살에게 받은 책을 여러 번 읽지 않고도 방법을 익혔다.
- ④ 벽성선은 양창곡에게 이별 후에는 자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하였다.
- ⑤ 벽성선은 난새를 언급하며 양창곡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옥루몽」은 천상계에서의 꿈을 통해 천상계 인물인 문창성, 제천선녀, 홍란성 등이 양창곡, 벽성선, 강남홍 등과 같은 지상계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윗글에서 양창곡과 벽성선이 꾸는 꿈은 ‘꿈속의 꿈’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꿈속의 꿈’은 인물들의 정체 암시, 인물들의 행동 유도, 지상계에서 발생할 사건 예시 등의 서사적 기능을 한다.

- ① ㉠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천상계의 문창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 보살은 장차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사랑하는 인물이 본래 천상계의 인물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에서 벽성선이 경험한 것은 양창곡이 조만간 사면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 ⑤ ㉡에서 양창곡이 벽성선에게 한 말은 벽성선이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2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재회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대비됨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과 ㉡ 모두 비극적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환기하고 있다.
- ④ ㉠은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가, ㉡는 인물이 부정하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 ⑤ ㉠은 인연의 단절에 대한 슬픔이, ㉡는 인연의 지속에 대한 소망이 내포되어 있다.

[34 ~ 3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썬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름도 혀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뇨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나을소나
㉠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호라
이 뉘희 안즈 보고 더 뉘희 거러 보니
번로(煩勞)호 뉘음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쉴 슌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야
다만 호 청려장(靑藜杖)이 다 므디여 가노미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술소나
블늉며 트이며 혀이며 이야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츠락
을프락 푼람호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호가(閑暇)호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괴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나
이 몸이 이렇굽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양정가」 -

(나)

㉠ 연하(煙霞)의 김피 든 병(病) 약(藥)이 효험(效驗) 업서 강호(江湖)에 바리연디* 십년(十年) 빗기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귀 성은(聖恩)인가 흐노라 <제3수>

들 붉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 일다 단정(短艇)*을 빗기 노하 오락가락 흐난 흥(興)을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 알가 흐노라 <제5수>

식록(食祿)을 굶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하니 험 업슨 아히들은 괴롭다 흐건마는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9수>

- 나위소, 「강호구가」 -

*바리연디: 버려진 지. *단정: 자그마한 배.

(다)

나는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가끔 그들과 토론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고집스런 취미를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나는 부득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금에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놓고 감상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다. 벽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맛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였다.

나는 종남(終南)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 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고 차가웠다. 나는 대청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소나무, 회양목 등 작은 놈만 골라 심었다.

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 자가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통으로 끌어다가 땅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 나오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이는 물인 줄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평평 솟아나는 것을 보며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산을 좋아했던 옛사람들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든 이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이는 이도 더러 있었는데, 집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이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 작지만 큰 산을 본땡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었다.

이 연못은 겨우 너비가 두어 장(丈)이고 깊이도 두어 자밖에 안 되며, 산 높이는 다섯 자이고 둘레는 일곱 자이며, 폭포의 높이는 두 자인데 나무들의 크기는 서너 치쯤 되어 마치 높은 산을 축소하여 만든 것 같았다. 산골짜기는 그윽하고 폭포가 두어 장 되는 연못을 깊은 바다로 알고 떨어진다. ㉢ 이 축소된 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산수화에 뛰어난 저 당나라의 정건이나 왕유 같은 이도 다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필경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진가(眞假)를 논하겠는가?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은데 듣기는 싫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곳의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이웃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에 맞다고 할 것이고,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이 바라보아도 싫증 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쉼 없이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나는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아름다운 것들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관현악기 같은 악기의 소리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다만 이 샘물로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하면서도 멋이 있다.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 채수, 「석가산폭포기」 -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다) 모두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다)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35. <보기 1>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1>
선생님: (가)와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들이 귀향한 후의 삶을 표현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시가의 특정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요. 두 작품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보기 2>
ㄱ.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ㄷ.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ㄹ.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 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6.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에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 ③ ㉢: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석가산을 만든 것에 대한 보람이 나타나고 있다.
- ⑤ ㉣: 자신이 만든 석가산과 폭포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요산요수(樂山樂水)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기 집 정원에 산을 본뜬 조형물인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간에 본질은 같기 때문에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은 석가산을 완상하면 산의 진경(眞景)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글쓴이는 노쇠하여 산과 물을 직접 찾기 어렵게 되자 별장의 정원에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고 있군.
- ② 글쓴이는 요산요수를 위해 연못의 한가운데 석가산을 만들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글쓴이는 산수화를 모아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산의 진경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글쓴이가 진가를 논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군.
- ⑤ 글쓴이가 석가산의 샘물에서 비롯된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한 것은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고층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군.

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A]에서 발생한 내적 갈등을 [B]에서 해소하고 있다.
- ② '나'는 [A]에서 한 행위로 인해 [B]에서와 같은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 ③ [A]의 '계단'은 관념적 소재에, [B]의 '절벽'은 실제적 소재에 해당한다.
- ④ [A]의 '사람들'은 '물'을 긍정적으로, [B]의 '이웃들'은 '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B]에서는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39 ~ 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문 앞의 감찰 완장들 중 한 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내달리며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딱 십 분을 주셨으니 잘 생각들 해서 정하우다. 뒷집에서 풀러나 천천히 입으로 올라가는 손가락 사이에는 태를 먹어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서져 내릴 듯한 허연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다. **앙칼지게 불어제치는 호각** 소리에 모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이것이 무슨 꿍꿍이속인가 싶어 숨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오 분쯤 지나자 몇 사람이 후다닥 양쪽으로 오고 갔다. 그러자 서로 기다렸다는 듯 이쪽 저쪽으로 **뒤죽박죽** 오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 앉았던 자리는 북으로 가는 자리였다. 머릿속이 웅덩그렁하게 비어 버려 망창히 앉아 있던 아버지에게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그저 너무 좋다는 생각만 한심하게 다가왔다. 고개를 돌려 보니 수용소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이남 자리로 넘어가서는 아버지보고 그쪽에 남으면 죽으니 날래 넘어오라구 난리를 쳤다. 갑자기 겁이 더러 올라붙은 아버지는 **시적시적** 이남 자리로 옮겨 갔다. 그러나 개인적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하는 생각이 스쳤다. 잔뼈가 굵은 고향이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을 **부모처자** - 아버지는 이미 전쟁 전에 장가를 들었다 - 모습이 눈앞에 밟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들거리리는 다리를 끌고 이북 자리로 넘어갔다. 그러나 자리에 앉고 보니 불현듯 물밑 쪽 같은 신세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뭘지 알 수가 없었다.

그만 하는 소리와 함께 호각이 뿅 울렸다. 아버지는 둔기로 뒷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져 왔다. 저 북도는 이미 단순한 북도가 아니라 삼팔선 바로 그것이었다. 아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차오르는 숨을 가누지 못해 고개를 쳐든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썩듯 들보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희끄무레한 물체가 들어왔다. 폭동의 와중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 준 그 흰쥐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남 쪽으로 걸음을 떼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북도 사이로는 감찰 완장들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판국이였다. 아버지는 얼른 북도로 내려섰다. 너무 서두르는 통에 발목을 접질려 비틀거리자 지나가던 감찰 완장 하나가 이놈이 하며 엉덩이를 걷어찼다.

내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 어딜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루 못 가갔드란 말이야. 기거이 바로 사람이야. 웬 쥐였냐고? 글썽 모르지. 기러다 보니 멍탕 햇것이 눈에 끼었는지두. 언젠가 돌아가겠지 하며 살다 보니..... 암만 생각해 봐두 꿈 같기두 하구..... 기리고 이젠 모르겠어..... 정짜루다 돌아가구 싶은 겐지 그럴 맘이 없는 겐지..... 늙으니까니 암만해두.

짓물러진 **눈자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민홍은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 덩어리가 솟구침을 느꼈다. 비껴 앉은 **아버지의 야원 잔등**을 보면서 민홍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렸다. 그 화석에 대한 일차적 기억은 **양상함**이었고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였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중략 부분의 줄거리> 대학생인 민홍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화상을 입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진 후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민홍은 어머니인 철원네로부터 쥐를 잡으라는 성화를 듣는다.

민홍은 철원네가 열고 나간 가게문을 닫기 위해 무심코 한 발을 방문턱에 올리는 순간 흠칫 몸이 굳어졌다. ㉠그놈, 바로 철원네가 입버릇처럼 너던 그놈이 아주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가게 문턱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했다.

- 예유, 어찌 된 애가 응,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까지 뛰어들었다는 애가 그래 그깟 쥐 한 마리를 못 잡는대서야 말이 되니? 기가 맥혀서. 이젠 그놈이 새끼까지 치고 아예 놀러갔으려는지 배가 이리 불룩하고 이만하게 늙은 놈이 등허리는 비루가 먹었는지 털이 훌쩍 벗겨져서는.....

민홍은 입을 조금 벌렸다.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애가. 정수리 끝까지 뻗쳐오른 기운 때문에 미세한 오한에 휩싸였다. 녀석은 민홍을 슬쩍 쳐다보았으나 느린 동작에는 변함이 없었다.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 녀석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손을 가만히 내려 냉장고 옆에 세워 둔 연탄집게를 들어 올렸다. 이거면 족하다. 민홍은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사정거리권 안으로 다가서는 민홍의 손아귀에서는 짙은 땀이 배어 나왔다. 녀석이 버거운 뱃구레를 추스르며 문턱에 오르는 순간을 일격의 시기로 잡았다. 그래 서두를 건 없어. 민홍은 손아귀에서 힘을 빼고는 일부러 탄 데를 쳐다보는 여유를 부렸다.

“그래 죽여라 죽여. 이려고 더 살든 뭐 하니? 너 죽고 나 죽자.”

민홍의 눈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아아, 나의 어리석음이어!

민홍은 낮은 신음을 흘리며 황급히 뒤쫓아 나갔지만 허사였다. 녀석의 굼뜬 동작은 괜히 상대방을 자만하게 만들기 위한 위장술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것은 등허리의 털이 벗겨질 만큼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새끼를 뺨 암컷의 빈틈없고 대담한 산술이었으리라. 녀석은 문턱에 오르려는가 싶더니 어느새 다람쥐보다 더 민첩한 동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민홍이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는 골목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빨려 들어가는 꼬리만 설핏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다. 민홍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우두망찰 서서 소리 없이 웃고 있는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 모르지 맹탕 헛것이 눈에 보였는지두.

아버지의 늘썩한 목소리가 귓전에 와 달라붙었다. 민홍은 찬찬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골목 저편에서 비닐봉지와 함께 다가온 바람이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달싹이고 갔다. 민홍은 입을 굳게 다물어 보았다. 그냥 그렇게 서 있고 싶었다. 불끈 쥐어 본 주먹에는 연탄집게가 알맞춤하게 들어 있었다. 웬지 느껴온 감정이 밀려오면서 저만치서 채 시작되지도 않은 겨울의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그쪽은 맨발이었다.

- 김소진, 「쥐잡기」 -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며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전쟁 포로였던 아버지는 북에 있는 가족을 외면하고 남한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이념적 당위를 앞세운 것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상황에서 가해진 폭력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에게 그 선택은 평생 상처로 작용한다. 민홍은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의 이면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게 된다.

- ① 감찰 원장의 ‘양갈지게 불어제치는 호각 소리’는 개인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강요했던 전쟁의 폭력성과 연결되는 것이겠군.
- ②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갠드란 말이야.’라는 아버지의 말은, ‘부모처자’를 위해 남한을 선택했던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한 것이겠군.
- ③ ‘깃물러진 눈자위’를 누르는 아버지를 마주한 민홍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민홍이 보게 된 ‘아버지의 야윈 잔등’은,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⑤ 민홍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린 것은, 아버지가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평생 전쟁의 상처에 갇힌 채로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41. ㉠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홍’은 ㉠와 관련해 ‘철원네’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다.
- ② ‘민홍’은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하는 ㉠를 발견하고 긴장하고 있다.
- ③ ‘민홍’은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를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 ④ ‘민홍’은 ㉠가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소리 없이 웃으며 ㉠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내뱉고 있다.
- ⑤ ‘민홍’은 ㉠를 놓친 후 ‘나의 어리석음이어!’라고 하며 자신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4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뒤죽박죽'은 여럿이 마구 뒤섞여 엉망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당면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적시적'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본인의 의지보다는 사람들의 성화로 인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살금살금'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피며 살며시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살랑살랑'은 꼬리를 가볍게 자꾸 흔드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한쪽으로 이끌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저벅저벅'은 발을 크고 묵직하게 내디디며 잇따라 걷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느낀 중압감을 드러내고 있다.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海溢) 엔요.
 예선 살 나이에 스물한 살 얼굴을 한
 그리고 천 살에도 이젠 안 죽기로 한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생술가지 울타리, 옥수수밭 사이를
 올라오는 해일 속 신랑을 마중 나와
 하늘 안 천 길 깊이 묻었던 델 파내서
 새각시 때 연지를 바르고, 할머니는

다시 또 파, 무더기 웃는 청사초롱에
 불 밝혀선 노래하는 나무나무 잎잎에
 주절히 주절히 매어달고, 할머니는

갑술년이라던가 바다에 나갔다가
 해일에 넘쳐오는 할아버지 혼신(魂身) 앞
 열아홉 살 첫사랑쩍 얼굴을 하시고

-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

(나)

마당에 살구꽃 이 피었다
 밤에도 흰 돛배처럼 떠 있다
 흰빛에 분홍 얼룩 혹은
 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
 더는 알 수 없는 빛도 스며서는
 손 닿지 않은 데가 결리듯
 담장 바깥까지도 흰하다

지난 겨울엔 빈 가지 사이사이로

하늘이 뜬어진 채 쏟아졌었다
 그 하늘을 어찌지 못하고 지금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매는가?
 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도 돋았다

아무래도 이 꽃들은 지난 겨울 어떤,
 하늘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만 같고 또
 그 하늘 아래서는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밭소리 같은 것 들려
 서 내려온

신(神)과 신(神)의 얼굴만 같고
 어스름녘 말없이 다니러 오는 누이만 같고

(살구가 익을 때,
 시디신 하늘들이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영글어 올 때 우리는
 늦은 밤에라도 한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보자
 그런 어느 날은 한 끼니쯤은 굶어라도 보자)

그리고 또한, 멀리서 어머니가 오시듯 살구꽃은 피었다
 흰빛에 분홍 얼룩 혹은
 어머니에,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친 굵은 실밥, 자국들

- 장석남, 「살구꽃」 -

(다)

‘내 마음은 호수’로 대표되는 은유는 흔히 ‘마음=호수’라는 등식과 함께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1:1로 대응되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마음’을 ‘호수’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음’과 ‘호수’가 상호 작용하면서 사랑의 심리 상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행인 ‘그대 노 저어 오오’도 실체가 아닌 은유적 의미로 읽히게 된다. 이는 은유가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쳐 관여하며, 은유의 본질이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생산과 창조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관점에서 (가)를 보면, ‘해일’이 일어난 것은 실제이지만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의 진술을 통해 ‘해일’과 ‘풀밭길’은 상호 작용하며 작품 전반에 걸쳐 각각 그 이상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랑’이 돌아오는 허구적 상황을 시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심정이 드러나며,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마당’은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재생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만나는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한다. 여기에는 순환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시인의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나)는 살구꽃이 핀 광경을 바탕으로 ‘살구꽃’과 바느질이라는 이질적인 속성을 연결하여 의미를 확장해 간다. ‘살림살이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을 향한 간구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신(神)’의 위로가 ‘살구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닌 그 상처를 감싸고 꿰맨 봉합의 흔적이다. 결국 시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은유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의 차원을 넘어 층위가

다른 대상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주제에 관여하고 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세계 인식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 낼 때 우리는 시가 주는 깊은 울림에 좀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 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44. [A]를 바탕으로 (가)의 **해일**과 (나)의 **살구꽃**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해일’은 ‘풀밭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할머니’가 ‘신랑’을 ‘마중’ 나가는 허구적 상황이 시적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② ‘해일’로 인해 ‘바다’가 죽음의 공간에서 재생의 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보아, ‘해일’에는 영원성을 지향하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살구꽃’은 ‘하늘’을 ‘여러 번씩 쳐다보던’ 시선에서 비롯되는 상승의 심상과 ‘내려온’에서 비롯되는 하강의 심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해일’은 ‘청사초롱’에 ‘불 밝’히는 ‘할머니’의 행위를, ‘살구꽃’은 ‘늦은 밤에라도’ ‘불을 켜’는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 내어,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 ⑤ ‘해일’은 ‘마당’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구꽃’은 ‘마당’과 ‘하늘’의 사이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세계의 만남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군.

45. (다)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를 바느질의 속성과 연결하여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굽은 실밥, 자국들’은 바느질의 속성을 통해 상처를 봉합한 흔적으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드러내며 주제 의식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뜯어진’, ‘퀘매는가’, ‘퀘매 감친’과 같은 시어를 통해 바느질의 속성을 ‘살구꽃’과 연결하여 작품 전반의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살림살이의 사연’과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는 삶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며 삶의 위안적 존재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생성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흰 돛배처럼 떠 있는’, ‘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으로 나타난 땅의 이미지를 ‘신과 신의 얼굴’로 변주하여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18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정답

1	⑤	2	③	3	③	4	②	5	②
6	④	7	①	8	②	9	①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①	15	④
16	②	17	①	18	④	19	②	20	①
21	①	22	⑤	23	②	24	③	25	①
26	⑤	27	⑤	28	③	29	②	30	①
31	④	32	④	33	③	34	⑤	35	①
36	④	37	⑤	38	②	39	③	40	②
41	④	42	③	43	⑤	44	④	45	⑤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 아즈머니슈?”

컴컴한 속에서 자취도 없이 다가오다가 박일성이가 말을 건다. 조고만 체통에 비를 쪼르르 맞은 행색은 쪽제비 같고 삼살개 같으나 캄캄한 속에서 반짝이는 눈은 올빼미 눈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준이택의 말에는 역시 가시가 품겨 있었다.

“수고랄 거 있습니까. 애쓴 보람 없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무 염려 마세요. 저기 가서 자리만 잡히면 곧 편지가 올 거니까 따라가서 편안히 사시게 될 겁니다.”

이 집 살림을 제가 말아보는 듯한 수작이다.

“그런데 하꼬방*은 꼭 혈라는 건지요?”

이 남자와 다시는 인사도 어울리기는 싫었으니 당장 급한 사정이라 말을 돌렸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가시게 될 텐데 그까짓 하꼬방쯤 내게 뭣기구 하시구려.”

㉠ “가긴 어딜 가요? 누가 가라 마라 해요.”

필준이택은 발끈하며 핏대를 돌리다가 지금 말눈치 보아서는 당장 혈어 가라는 것은 아닌 모양이니 무슨 도리를 차리자면, 이 사람을 덧들여 놓아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성을 높여 사정을 하였다.

“혼жат손에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작자만 나서면 팔아 버릴까 하는데…….”

“글쎄…… 그래 얼마나 받으시게?”

역시 금시로 혈리지는 않을 것을 알고 하는 말눈치 같다.

“하꼬방만 터값 합쳐 십만 원에 사구 솔 하나 걸었죠. 그 외에 그릇 나부렁이까지 껴서 십오만 원은 받을까 하는데요?”

동네 집에서 쫓겨 나가는 사람들이 반의 샅에도 찢찢매는 꼴을 보고 거의 빼앗다시피 혈가로 흥정을 붙여서 저희 동무들에게 넘기는 것이었지마는, 하여간 그런 자국에 소개도 곧잘 하는 박일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꺼낸 것이었다.

“아 언제 혈릴지 모르는 걸 십오만이라니 어림두 없습니다.

계다가 ㉠ 그까짓것 붙들구 앉았어야 세금은 점점 오르구.....”
 세금 노래를 꺼내는 것을 보니, 너 같은 빨갱이도 그런 줄이나 아는구나 하고 필준이덕은 **속으로 웃자니까**
 “한 오만 원이라면 내가 살까!”
 하고 썩 웃는다. 필준이 내외가 걸어붙이고 나서서 하꼬방 하나로 다섯 식구가 뜯어먹고 사는 것을 보고, 저희는 쌀배급 광목배급이니 소고기가 공짜로 들어왔느니 하고 **땡땡거리고** 살면서도 그 하꼬방이 부러워서 여편네를 그런 거나 시켜 보았으면 하고 배를 앓던 박일성이었으니 제가 사겠다는 말도 실없는 소리가 아닐 것 같기는 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인민군에게 끌려갔던 필준은 겨우 도망쳐 집으로 돌아와 비밀 지하실에 숨어 지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평소 하꼬방을 탐내던 박일성 반장 내외가 이를 눈치 채고, 반장덕은 내무서원과 인민군을 대동하고 필준이덕(진숙 어머니)의 집으로 갑자기 들어닥친다.

“지하실은 어디야?”
 이때까지 다다미를 밟는 투박스러운 구둣발자국 소리밖에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던 캄캄한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앞을 우뚝 막아서며 그 거센 목소리로 **무덤 속같이 조용한 밤공기를 휘저 놓는다.**
 “이 동네 집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지하실이란 말에 남편의 얼굴이 또 떠오르면서 속이 떨렸다.
 “마루 밑에 없으면 다다미 밑에라도 봤겠지?”
 진숙 어머니는 다시 머리가 어쩔하였다.
 ‘하누님 맙시사!’
 하고 속으로 빌었다. 전신의 기운이 쪽 빠지고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것을 간신히 몸을 가누고 섰다.
 “여보 이리 오슈.”
 마루 끝에서 치어다보고 섰는 병정에게 소리를 치고 내무서원이 앞장을 서 방으로 다시 들어간다.
 아이들 옆의 빈자리를 구둣발로 걸어차며
 “여길 열어 봐.”
 하고 호령을 한다.
 뒤따라 들어온 진숙 어머니가 요를 걷어치우고 **다다미를 들어 내려니까**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반장 여편네도 머리맡으로 가서 거든다. 다다미를 들어내고 널판지를 벗긴 뒤에 회중전등을 비춰 보아야 별 수는 없었다. ㉡ 김이 빠져 머쓱해진 내무서원은 여전히 잠자코 온돌방을 거쳐 삼조 방으로 뚜벅뚜벅 건너간다.
 아이들은 이 법석에도 세상 모르고 곧드라져 숨소리 없이 잔다.
 인제는 될 대로 되라고 기진맥진한 진숙 어머니는 등신처럼 떨거니 섰기만 하다가 반장 여편네가
 “여보 그래두 어떻게 됐는지 가 봅시다.”
 하고 등을 미는 바람에, 온돌방으로 들어서니 벌써 남편의 기어 나오는 허연 그림자가 눈에 힐끗 띈다. ㉢ 진숙 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철그럭.....
 수갑을 채우는 소리다. 다음 순간 남편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앞장을 서고 내무서원 병정 반장 여편네..... 아무 소리도 없이 줄달아 나온다. 밖에 나와서도 반장 여편네는 진숙 어머니의 옆을 지날 때 외면을 하였다.
 얼이 빠져 섰던 진숙 어머니는 무슨 새 힘이 났는지 쭈르르 뛰어나가 남편 옆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 다만 현관에서 고무신을 바로 놓아 주었다.
 ㉣ “아이들하구 잘 있어!”

내무서원이 문을 열어 주니까 필준이는 멍뭇하고 얼굴을 돌리며 한마디 던지듯이 하고 나간다.
 “안녕히 가세요.”
 반장 여편네가 꼬박 인사를 하고 문밖에 나선 진숙 어머니에게는 알은체도 없이 달음질을 쳐서 저의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진숙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진숙 어머니는 남편의 그림자가 골목 모퉁이를 곱뜨려 스러질 때까지 병어리처럼 아무 소리 없이 떨거니 섰었다. 눈에는 눈물 한 점 스며나지 않았다. 대문도 거는 것을 잊어버리고 방으로 들어온 진숙 어머니는 자는 아이들 옆에 쓰러지며 고개를 파묻고 비로소 목이 메어 울음이 복받쳤다. 한 십 분은 그대로 인사 정신 없이 울었으리라. 어머니 울음소리에 아이들이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자 진숙 어머니는 몸을 어떻게 지향할 수가 없는 듯이 별안간 벌떡 일어나서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니—”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바람에 잠이 덜 깨어 떨거니 앉았는 아이들은 혼이 나서 어머니가 미쳤다? 하고 **덜덜 떨고 있다.**
 - 염상섭, 「탐내는 하꼬방」 -

*하꼬방: 판잣집을 뜻하는 일본어.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인민군 치하의 서울을 배경으로, 이념 대립으로 인한 참혹한 전투 장면보다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모습과 그들이 처한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 인물로 인해 개인의 삶이 위협 받고 가족 공동체의 삶이 파괴된다. 이를 통해 인간성 상실과 비극적 삶이 부각되고 있다.

- ① 하꼬방 값을 흥정하기 위해 ‘언성을 녹여 사정’하는 진숙 어머니의 모습에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인물의 삶을 엿볼 수 있군.
- ② 인민군 치하에서 ‘땡땡거리고’ 사는 박일성을 보며 ‘속으로 웃’는 진숙 어머니를 통해 혼란한 시기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③ 필준을 찾는 ‘거센 목소리’가 ‘무덤 속같이 조용한 밤공기를 휘저 놓는’ 장면에서 인물의 삶이 위협 받는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을 엿볼 수 있군.
- ④ ‘다다미를 들어내’는 진숙 어머니를 거들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반장 여편네를 통해 부정적인 인간상을 엿볼 수 있군.
- ⑤ 진숙 어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아이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공동체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군.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필준이택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박일성의 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박일성은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준이택을 염려하고 있다.
- ③ ㉢: 내무서원은 자신의 예측과 다른 결과에 멧쩍어 하면서도 하던 일을 지속하고 있다.
- ④ ㉣: 진숙 어머니는 자신이 걱정하던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다.
- ⑤ ㉤: 필준은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다.

[29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난 너를 구경오진 않았대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顛倒)된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

(나)

무르익은
과실의 밀도(密度)와 같이
밤의 내부는 달도록 고요하다.

잠든 내 어린것들의 숨소리는
작은 벌레와 같이
이 고요 속에 파묻히고,

별들은 나와
자연(自然)의 구조에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

한 시대 안에는 밤과 같이 해체(解體)나 분석(分析)에는
차라리 무디고 어두운 시인들이 산다.
그리하여 토의의 시간이 끝나는 곳에서
밤은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

꽃들은 떨어져 열매 속에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

그리하여 시간으로 하여금
새벽을 향하여
이 풍성한 밤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 할 줄을 안다.

- 김현승,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

(다)

문학에서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감각적 체험을 통해 얻은 심리적 인상 체계나 비유적 표현 등을 통해,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에서의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시적 상황을 암시하여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 이미지란 독자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그림인 것이다.

한편 이미지의 기능으로 신선감, 강렬성, 환기력 등을 들기도 한다. 신선감이란 어휘나 소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빚어내는 새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낮익은 대상을 낯설게 드러내어 독자들이 참신함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강렬성이란 작품 속 이미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의미를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고, 환기력이란 이미지를 통해 특정한 정서가 환기되는 것을 뜻한다.

2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어조를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로 끝맺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0. (다)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쇠창살’, ‘철책’, ‘창살 틈’ 등의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어 긴밀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강렬성을 통해 단절과 속박이라는 시적 의미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② (가)의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본다’와 같이 시각적 체험으로 얻은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대상과 전도된 화자의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③ (가)의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와 같은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환기력을 통해 비통한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④ (나)의 ‘별들이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와 같이 친숙한 대상을 낯설게 드러낸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신선감을 통해 시간적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⑤ (나)의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과 같이 비유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삶의 유한함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31. ㉠과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작가는 과실 ‘밤[栗]’과 시간 ‘밤[夜]’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중첩시키고 있다. 과실이 지니는 속성과 가치는, 시간적 배경인 ‘밤’의 의미와 연결되어 성장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한편 시간으로서의 ‘밤’은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며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과실로서의 ‘밤’의 속성은,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으로서의 ‘밤’과 중첩된다.

- ① 1연의 ‘과실의 밀도’처럼 ‘달도록 고요하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라는 것에서 과실과 시간의 중첩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군.
- ② 2연의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파묻히고’를 통해 독자는 ‘밤’이 ‘새벽’이 오기 전 ‘시인’의 감성이 위축된 시간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4연의 ‘해체나 분석’과 ‘상상’의 대비를 통해 독자는 ‘밤’이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겠군.
- ④ 4연의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임을 느낄 수 있겠군.
- ⑤ 6연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하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시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군.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소슬하야 나뭇잎이 다 진 후의 계산(溪山)이 삭막거늘
 겨울이 조화 부러 백설(白雪)을 누리오니
 수많은 산봉우리 골짜기가 경요굴이 되었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노피 드니
 가없는 설경(雪景)은 다 시(詩)의 제재가 되었으니
우활(迂闊)*한 정신(精神)이 추위를 어이 알꼬
 사계절의 모습이 가는 듯 도라오니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도 그칠새고
 맑은 물 귀 씻으니 허유*를 내 부러워하랴
낙숫대 드리우니 칠리탄*과 엇더흐고
 이원의 반곡*이 이러턴가 엇더흐며
 무이산의 청계는 이예서 더 도흔가
 화산(華山)의 한 부분은 나누자 흐거니와

이 ㉔ 별천지는 나밖에 뉘 아논고

< 중략 >

산조산화(山鳥山花)를 내 버즐 삼아 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삼킨 대로 노는 몸이
공명(功名)을 생각하며 빈천(貧賤)을 설워홀가
단사표음(簞食瓢飲)을 내 분수로 여기니 일월(日月)도 한가홀사
이 계산(溪山) 경물(景物)을 슬도록 거느리고
백 년 세월을 노닐다가 마치리라
아이야 사립문 닫아라 세상 알까 호노라

- 정훈, 「용추유영가」 -

*우환: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허유: 중국 요임금 때 은사(隱士).

*칠리탄: 중국 후한 때 엄광이 몸을 숨긴 동강의 여울.

*반곡: 중국 당나라 때 이원이 은거한 곳.

(나)

맑은 하늘 들 붉거늘 일장금(一張琴)을 빗기 안고
난간(欄干)에 기대 안자 옛 양춘곡(陽春曲)을 뜯은마리
엇더타 님 향흔 시름이 곡조(曲調)마다 나느니

<제1수>

시절이 하 수상하니 마음을 들 더 업다
교목(喬木)도 네 곳고 신하도 그득하되
의론(議論)이 여기 저기 하니 그를 몰라 호노라

<제3수>

송옥(宋玉)*이 그을홀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
차가운 서리 흰 이슬은 하늘히 기운이라
이 내의 남은 저 근심은 봄 그을이 업서라

<제6수>

공맹(孔孟)의 적통(嫡統)*이 느려 주자(朱子)께 다다르니
자세한 학문(學文)은 궁리(窮理) 정심(正心) 나란히 일렀네
엇더타 강서(江西) 의론(議論)*은 그를 지리(支離)타 호던고

<제9수>

장부(丈夫)의 몸이 되어 기한(飢寒) 두려울까
일산(一山) 풍월(風月)애 즐거움이 그이 업다
내 마다* 부운(浮雲) 부귀(富貴)를 따를 줄 이시라

<제11수>

득군행도(得君行道)는 군자(君子)의 뜻이로되
때를 못 만나며는 고반(考槃)*을 즐겨호느니
넉넉흔 술바람에 달보기야 나 썬인가 호노라

<제12수>

- 장경세, 「강호연군가」 -

*송옥: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굴원의 제자.

*적통: 정식으로 대를 이은 계통.

*강서 의론: 주희와 육구연이 강서에서 논쟁함. 주자학을 비판한 강서학파를 의미함.

*마다: 싫다.

*고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김.

(다)

바구니를 가지고 산으로 나물을 뜯으러 가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일이다.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네째는 모두 다 내 나물 동무들이었다. 활나물, 고사리 같은 것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만 꺾을 수가

있었다. 뱀이 무섭다고 하는 나한테 섭섭이는 부지런히 씹순을 꺾어서 내 머리에다 갈아 꽃아 주며, 이것을 꽃고 다니면 뱀이 못 달려든다는 것이었다. 산나물을 캐러 가서는 산나물만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산 저 산으로 뛰어다니며 **뽕꼭채**를 꺾고 **싱아**를 캐고 심지어는 **침뿌리**도 캐는 것이었다. 침뿌리를 캐서 그 자리에서 먹는 맛이란 또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꿩이 푸드덕 날면 깜짝들 놀라곤 하는 것이었다. 내가 산나물을 뜯던 그 그리운 고향엔 언제쯤 가게 될 것인가?

고향을 떠난 지 30년. 나는 늘 내 기억에 남은 고향이 그림고 오늘처럼 이런 **산나물**을 대하는 날은 고향 냄새가 물큰 내 마음을 찢러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다.

< 중략 >

진달래도 아직 꺾어 보지 못한 채 봄은 완연히 왔는데, 내 마음속 골짜구니에는 아직도 얼음이 안 녹았다. 그래서 내 심경은 여태껏 춥고 방 안에서 밖엘 나가고 싶지가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을씨년스럽다.

시골 두메 촌에서 어머니를 따라 달구지를 타고 이삿짐을 싣리고 서울로 올라오던 그때부터 나는 이미 ㉕ 에덴 동산에서 내 쫓긴 것이다.

그리고 씹순을 머리에다 안 꽃고 다닌 탓인가, 뱀은 내게 달려들어 술한 나쁜 지혜를 넣어 주었다.

10여 년 전 같으면 고사포(高射砲)를 들이댔을 **미운 사람**을 보고도 이제는 곧잘 웃고 혼연스럽게 대해 줄 때가 있어 내가 그 순간을 지내놓고는 아찔해지거니와 풍우난설(風雨亂雪)의 세월과 함께 내게도 꽤 때가 앉았다.

심산(深山)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의 품에서 퍼질 대로 퍼지고 자랄 대로 자란 싱싱하고 향기로운 이 산나물 같은 맛이 사람에게 있는 법이건만, 좀체 순수한 이 **산나물 같은 사람**을 만나기란 요즘 세상엔 힘든 노릇 같다. 산나물 같은 사람이 어디 없을까? 모두가 억세고 꼬부라지고 벌레가 먹고 어떤 자는 가시까지 돋쳐 있다.

어디 산나물 같은 사람은 없을까?

- 노천명, 「산나물」 -

37.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고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감을 나타낸 어휘를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38.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우환'은 속세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나)의 '장부의 몸'은 자연 속에 사는 화자를 가리킨다.
- ② (가)의 '내 부러워하랴'와 (나)의 '나 썬인가 호노라'에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 ③ (가)의 '뉘싯대'는 화자의 흥취가 드러나는, (나)의 '양춘곡'은 화자의 시름이 묻어나는 소재이다.
- ④ (가)의 '공명'과 (나)의 '부귀'는 화자가 거리를 두는 대상이다.
- ⑤ (가)의 '계산 경물'과 (나)의 '일산 풍월'은 화자가 즐기는 풍류의 대상이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강호연군가」에서 강호에 은거해 풍류를 즐기는 작가는 자연 속에서 성현의 학문을 칭송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 임금을 잊지 못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당쟁으로 인해 혼란한 정국 속에서, 권력에서 소외되어 가던 작가의 고뇌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1수: 강호에서도 임금을 잊지 못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3수: 당쟁이 계속되는 나라의 상황을 걱정하는 작가의 고뇌를 엿볼 수 있군.
- ③ 6수: 자신을 다른 인물과 비교하며 자연의 변화 속에서 근심을 잊고 사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9수: 성현의 학문적 정통성을 언급하며 그들의 학문을 칭송하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⑤ 12수: 군자의 뜻을 실현할 수 없는 혼란한 정국에서 은거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에는 고향과 인정(人情)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나타난다. 글쓴이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의 체험과 그 체험 속의 풍물들을 통해 지난날의 순수를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 ①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네째’ 등을 떠올리는 것에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삐죽채’, ‘싱아’, ‘침뿌리’ 등은 유년 시절 글쓴이의 체험 속 풍물들에 해당하는군.
- ③ ‘나’가 오늘 마주한 ‘산나물’은 글쓴이에게 고향과 인정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군.
- ④ ‘미운 사람’을 보고도 반갑게 웃어주는 글쓴이의 모습에서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바람이 드러나는군.
- ⑤ ‘산나물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글쓴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4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동심이 유발되는 공간이다.
- ② ㉡는 ㉠와 달리 새로운 소식을 듣는 공간이다.
- ③ ㉠과 ㉡는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 ④ ㉠과 ㉡는 모두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다.
- ⑤ ㉠과 ㉡는 모두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공간이다.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삼아(三兒) 점점 자라 십 세에 미치매 절세한 용색과 선연(嫵妍)한 품성이 비상특이하고 문견(聞見)이 통하고 민첩하여 시서백가(詩書百家)에 모를 것이 없고 매양 후원에서 조약돌로 진(陣)을 벌이며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익히거늘 왕씨 알고

가장 민망히 여겨 삼녀를 타이르며 왈,

“여자의 도(道)는 내행(內行)을 닦으며 방적(紡績)을 힘써 규중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외도(外道)를 행하여 고인에게 득죄함을 감심(勘審)코자 하는가? 우리 팔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매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 이제 너희 조금도 규녀의 행실을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사리에 맞지 않아 남들이 알게 해서 안 됨이라. 만일 네 부친이 아시면 특별히 대죄할 것인데 내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뇨?”

삼소저 이 말을 듣고 대경 사죄 왈,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 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뵈올 길이 없사온지라. 옛날에 당 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 소녀 등도 이 일을 본받아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 크게 어지러우매 소녀의 득시지추(得時之秋)* 이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오?”

하니 왕씨 듣기를 마치고 삼녀 의지 굳건하고 정해진 마음이 비속함을 보고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이러니 그 후에 삼소저 또 후원에서 무예를 익힐새 유생이 다다라 보고 대경하여 궁시와 병서를 다 불지르고 왕씨를 몹시 꾸짖으며 왈,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음은 이 어떤 일이뇨? 일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 하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하고 가출한 삼소저(자주, 벽주, 명주)는 최완, 최진, 최경과 형제를 맺는다. 진원 도사에게 수행을 마친 육 인(六人)은 조광윤을 찾아 섬기기로 한다. 한편, 북군이 변방을 침노하자 육 인과 조광윤은 원양성을 뺏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차설. 육 인이 원양성 십 리에 주둔하고 계교를 의논할 새 명주 왈,
“㉠ 여차여차 하면 어떠하뇨?”

최완이 대희 왈,

“그대 말이 정히 내 뜻과 일반이라.”

하고 명일 이른 아침에 최완과 명주 각각 변복하고 원양성하에 나아가 크게 불러 왈,

“아등(我等)이 태수께 고할 말씀이 있노라.”

하니 수성장 장임이 친히 문루에 올라 바라본 즉 양인이 손에 병기 없이 황망한 낯빛으로 성하에 이르렀거늘 장임이 이르되,
“여등(汝等)은 어떤 사람이완대 성에 들고자 하느냐?”

양인(兩人)이 왈,

“아등은 절장에 사는 백성이러니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으며 문을 열어 주소서.”

하거늘 장임이 그 용모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여 즉시 영을 내려 문을 열어 들이니 양인이 천연히 들어와 장하에서 읍고 왈,

“아등은 원래 물화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하여 자생하더니 대원수 조광윤이 물화를 다 앗고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키어 우리 만일 성공치 못하거든 인하여 죽이라 하니 우리 본래 창검과 궁시를 모르거늘 어찌 이 소임을 당하리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림에 마지못하여 장군께 항복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 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어여삐 여겨 잔명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장임이 청과에 의심치 아니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하니 부장 원견이 간(諫)왈,

“양진이 상대하매 천만 가지 계교로 진중 허실을 탐지하거늘

장군은 어찌 차인 등을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아니 하느냐. 익히 생각하여 타일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명주 읍 왈,
 “우리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더니 이제 이렇 듯 의심하매 가위 진퇴유곡이라.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낫 이라도 장군을 의지하리라.”
 하고 말을 마치고 허리춤으로부터 단검을 빼어 자결코자 하거늘 장임이 급히 만류 왈,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 사정이 이 같은 즉 어찌 다시 의심하리오.”
 하고 양인을 머물러 주육으로 정성껏 대접하더니 수일이 지난 후 최유 양인이 장임더러 왈,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의 심복이라. 일을 지체하면 후환이 되리니 삼일 후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㉞ 여차여차 덮치면 아등이 합력 내응하리라.”
 하고 돌아가려 하더니 장임이 응낙하고 즉시 보내니라.

차설. 양인이 본진에 돌아와 거짓으로 항복한 소유를 이 르고 땅굴을 깊이 판 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일천 군마를 거느려 대진 뒤에 매복하고, 최완은 이천 군을 거느려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 하여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 가 삼경 후 북병에게 꽤한 채하고 북문을 열라 하며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최경은 일천을 거느려 땅굴 좌우에 매복하고 차일 야심한 후 대전에서 불을 놓으니 화광이 충천한지라. 장임이 불 일어남을 보고 최완 등의 내용이라 하여 부장 한양으로 성을 지키오고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크게 고향하고 짓쳐 들어가더니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날날이 땅굴에 빠지며 일성 대포 소리에 사면 북병이 일어나니 북군이 불의지변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지며 죽는 자 또한 부지기수라. 장임과 원평이 겨우 도망하여 원양성으로 달아나니라. 차시 최완이 본진에

[A] 불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북문에 나아가 대호(大號) 왈,
 “우리 북한(北漢)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
 하니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꽤히 열거늘 최완이 급히 군을 몰아 짓쳐 들어가니 한양이 대경하여 대적하다가 최완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 최완이 승세하여 서문으로 충돌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맞아 십여 합을 싸울새 장임의 기운이 쇠진하여 달아나거늘 문득 벽주 고성 왈,
 “장임 적자는 단지 말라.”
 하며 활을 한 번 당기어 장임의 어깨를 맞추니 장임이 몸을 번드쳐 말에서 떨어지매 최경이 달려들어 장임을 생포하여 돌아가거늘 원평이 대로하여 말을 놓아 자주로 더불어 교전하여 십여 합에 이르러는 자주의 칼이 번듯하며 원평이 탄 말이 거꾸러지니 원평이 말에서 내려 할 일 없어 항복하는지라.

— 작자 미상, 「옥주호연」 —

*독시지추: 기다리던 때를 얻게 된 때.

4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표출하고 있다.
- ②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43.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양’은 원양 북문을 개방하여 북군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 ② ‘유생’은 ‘삼소저’의 행동을 단속하지 못한 ‘왕씨’를 책망하고 있다.
- ③ ‘왕씨’는 ‘삼소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④ ‘삼소저’는 천하가 어지러움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장임’은 ‘원건’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명주’와 ‘최완’을 환대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된 효는 학문과 무예에 힘써 입신양명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여성에게 요구된 효는 규방에서 예절을 익히는 것이었다.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이러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남성 영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① 삼소저가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것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엿볼 수 있군.
- ② 삼소저가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는 것에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에 대해 알 수 있군.
- ③ 삼소저가 여자의 도에 대해 설명하는 왕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벽주가 한 번 쏜 화살에 장임이 말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에서 여성 주인공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는군.
- ⑤ 삼소저가 최완, 최진, 최경과 함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남성 영웅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 영웅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45. ㉠와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칭송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대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대화 상대방과 진실로 협력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대화 상대방에게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5	2	3	3	5	4	2	5	3
6	2	7	3	8	3	9	5	10	3
11	4	12	3	13	4	14	5	15	4
16	5	17	3	18	4	19	5	20	2
21	2	22	4	23	4	24	4	25	1
26	1	27	2	28	2	29	4	30	5
31	2	32	4	33	4	34	3	35	2
36	1	37	3	38	1	39	3	40	4
41	4	42	5	43	1	44	2	45	4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부제…….”

나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릉에서 올라올 때부터 내내 입속으로 되뇌며 연습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뜻을 불러야 하고. 이젠 당숙을 그렇게 불러야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아부제가 놀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부제…….”

㉠ “…….”

“지가 잘못했어요.”

“언, 언제 완?”

“어제요. 어머니가 아부제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

“…… 밥은 먹은?”

“야, 내일 온다더니요?”

“여계서 들어오는 사람 편에 니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잔.”

“진지는 드셨어요?”

“거계서 먹기는 해두 니가 뭘 안 먹었음 같이 먹을라구…….”

“말은요?”

“뒤꼍에 매났는기 이젠 그것두 힘을 못 써서…….”

“아부제…….”

“…….”

“가요, 집에…….”

“오냐, 가야제. 니가 왔다 해서 다 챙겨 내려왔는기. 집은 다 켜한?”

“야.”

“느 숙모도?”

“야.”

아부제는, 나는 빈 몸으로 오고 아부제는 말을 가져왔으니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아부제는 내일 산에서 간조패들이 내려오면 돈을 마저 받은 다음 말을 끌고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나도 아부제하고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다. 가방까지 들고 나왔는데도 그날 하루 더 영자 누나 방에서 잠을 잤다. 아부제는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른다. 다음 날 영자 누나가 출근한 다음 아부제가 말하던 대로 열 시쯤 진부옥으로 다시 갔을 때 아부제는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한 얼굴로 멀끔하게 앉아 있었다. 부엌 쪽을 살펴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 “니 나하구 대화 가지 않으렌?”

“거긴 어딘데요?”

“차를 타든 된다. 거긴 여기보다 큰 전방들이 많으니 니 뭐 사구 싶은 것두 사구…….”

그날 아부제는 내게 시계를 사 주었다. 내가 고른 것보다 아부제 마음에 드는 게 더 비쌌는데 비싼 그것을 사 주었다. 큰 형은 시계가 있어도 고등학교 3학년인 작은형은 아직 시계가 없었다. 라디오를 들면 매시간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 열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오리엔트 야광 손목시계였다. 그 외에도 내 옷과 숙모 옷 몇 가지를 더 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옷가지도 샀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점심은 내가 내 식대로 아부제 것과 내 것을 시켜 먹었다. 아부제한테 내가 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봉평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부제는 진부옥에서 돈만 받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흥정산 간조패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내려왔다.

㉔ “야, 느들 장래 우리 집 대주 봐라. 우리 아들 얼굴 얼마 나 흰한가 한번 보란 말이다. 느 아들들이면 이만한 나이에 혼자 애비 찾아오겠나?”

아부제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다음 길을 떠나기 전 몇 잔 술을 마시며 연신 내 자랑을 했다.

(중략)

“나 내려가면 이제 아부제 집에 가서 살려구 해요.”

“우리 집에?”

“야.”

㉕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든?”

“아뇨, 지 마음으로도요.”

“니 마음으로도?”

“야,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 놓으라고 했어요.”

“수호야.”

“야.”

“아부제는 고맙다, 무슨 말인 줄 알제?”

“야.”

㉖ “그래, 내려가든 나두 이 짐승 치우지 뭐. 니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겐.”

“.....”

“허, 이놈이 말귀 알아듣나, 절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들게.”

“안 치워도 나 아부제 집에 가 살아요.”

“그래, 치우지 뭐. 치울 거야. 이제 이거 힘두 제대루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거, 늙어서 고집두 늘구.....”

그날 아부제와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이 붉게 동틀 무렵 하생골 집에 닿았다. 그러나 그날 밤길에도 그랬고, 먼저 살던 집에서 아부제 집으로 살림을 옮기듯 책상과 책가방, 입던 옷가지들과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후에도 끝내 말과는, 그리고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예전보다 덜 부끄럽다고 해도 그랬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도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으로 느끼던 열세 살의 소년이었다.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까지 집에 있었다. 내가 저를 폄박하고 서러움 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다. 말굽을 박았는데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밟아 오른쪽 앞다리부터 못 쓰게 되더니 한 해 겨울을 한쪽 다리를 늘 구부린 채 서서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만 것이었다. 알리진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시내의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와 죽은 그를 싣고 내려갔다. 아부제는 따라가지 않았다. 마부들이 그림 저녁때 고기라도 보낼까, 하고 묻자 아부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남몰래 감추는 아부제의 눈물을 보았다. 한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받았다.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랬다. 아마 그가 죽어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 해도 나는 앞으로는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원고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의 슬픈 생애에 대해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린다.

- 이순원, 「말을 찾아서」

2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부제’ 집에 가서 살기로 결심한다.
- ② ‘나’는 ‘아부제’와 함께 떠나기 위해 봉평에서 하룻밤을 더 묵기로 한다.
- ③ ‘아부제’는 대화에서 ‘나’와 점심을 시켜 먹으며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다.
- ④ ‘아부제’는 ‘나’가 봉평에 온 사실을 ‘나’와 대면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 ⑤ ‘아부제’는 힘을 못 쓰는 말 때문에 강릉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22. ㉑ ~ ㉖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예상하지 못했던 호칭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어 선뜻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② ㉒: 큰 전방들이 많이 있는 ‘대화’에 가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 주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 ③ ㉓: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장래 우리 집 대주’라고 밝히며 자신에게도 남에게 내세울 아들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 ④ ㉔: ‘나’의 결정이 ‘어른들’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㉖: ‘이 짐승’에 대한 ‘나’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말을 찾아서」는 ‘나’를 양자로 들이고자 하는 당숙과 이를 거부하는 ‘나’가 갈등을 빚다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양자 입양에 반발하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당숙은 집을 떠나 버린다. 죄책감을 느낀 ‘나’는 당숙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를 ‘아부제’로 받아들이지만 노새와 당숙의 노새 끄는 일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어린 시절의 이와 같은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상처로 남게 되며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 ① 당숙의 집으로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것은 ‘나’가 양자 입양을 수긍하고 당숙과 화해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겠군.
- ②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양자가 된 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겠군.
- ③ 당숙의 양자가 된 다음에도 노새에게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준 것은 ‘나’가 ‘노새’와 관련된 당숙의 삶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것은 ‘노새’의 희생으로 인해 ‘나’가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여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성인이 되어서도 ‘나’가 원고에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이겠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 고향의 내 집에 있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찌 먼 외진 거리에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
 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
 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찌 한고향 사람의 ㉡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
 어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뽠뽠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
 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
 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나)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방고래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그녀는 없다, 나는 ㉣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물은 얼어 끓어지고, 솥검댕이 아궁이는 켜하다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감'이라 한다.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 일컫는다.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시에 나타난 화자의 장소감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내면 의식, 지향점 등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또한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그 장소에 놓인 어떤 특정 대상들은 이 [A] 러한 화자의 장소감, 즉 그 내면의 정서를 강화나 확장, 또는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2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 ②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특정 색채 이미지로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이 집약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30. (다)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할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④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⑤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31.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 ② '마른 물고기 한토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 ③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3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재미 3」은 문태준의 '가재미' 연작 중 하나이다. 「가재미」는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임종 전 모습을, 「가재미 2」는 임종 후 장사지내는 모습을, 「가재미 3」은 어머니의 빈집을 다시 찾아온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재미 3」에서 화자는 '그녀'를 위해 '빈집'에 남겨진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내고 있다. 이는 이승에서의 춥고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없애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슬픔도 함께 비워 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 ① '없다', '홀로', '헝하다'의 시어에는 그녀가 부재하는 '빈집'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며칠째 눈보라를 맞고 있는 '늪은 고욤나무'처럼 서럽도록 추웠던 과거 그녀의 삶의 모습은 '바람벽'에 비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식은 재를 끌어내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은 그녀가 이승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④ 화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했다고 추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를 위해' 재를 끌어낸다고 말하는 것이겠군.
- ⑤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는 것은 재를 모두 끌어냄으로써 그녀의 아픔은 물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까지도 모두 비워 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산(靑山)은 에워 들고 녹수(綠水)는 도라가고
석양(夕陽)이 거들 썰에 신월(新月)이 소사난다
안전(眼前)의 일존주(一尊酒)* 가지고 시름 프자 호노라
<제1수>

강산(江山)의 눈이 닳고 세로(世路)의 늦치 서니
어디 뉘 문(門)의 이 허리 굽닐손고
일존주 삼척금(三尺琴) 가지고 백년소일(百年消日)호리라
<제3수>

넋 말도 늙이 마소 늙의 말도 넋 아닌넋
고산(孤山) 불고정(不孤亭)의 조하 늙는 몸이로쇠
어디셔 망녕의 손이 검다 세다 호나니
<제4수>

┌ 엇기제 비즌 술이 다만 세 병(瓶)뿐이로다
[A] 흐 병(瓶)은 물의 높고 쏘 흐 병(瓶) 피희 노셔
└ 이 밧기 나쁜 병(瓶) 가지고 달의 논들 엇더리
<제6수>

생애도 고초(苦楚)호고 세미(世味)*도 담박(淡泊)호다*
흰 술 흐두 잔의 프른 글귀 뿐이로쇠
옥경현(玉鏡軒)* 평생행장(平生行狀)이 이 밧기는 업세라
<제7수>

칠현(七絃)이 냉냉(冷冷)호니 네 소리는 잇다마는
종기(鍾期)*을 못 만나니 이 곡조(曲調) 게 뉘 알이
벽공(碧空)의 일륜명월(一輪明月)이 넋 버진가 호노라
<제9수>

- 장복겸, 「고산별곡(孤山別曲)」

- * 일존주 : 한 통의 술. * 세미 : 세상 사는 맛.
- * 담박하다 : 멋스럽지 못하다.
- * 옥경현 : 작가 소유의 전각의 이름이며 아호임.
- * 종기 : 중국 춘추 시대 인물로 자신의 친구인 백아의 거문고 실력이 뛰어남을 알아봄.

(나)

까치 소리는 반갑다. 아름답게 굴린다거나 구슬프게 노래한
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하게 짓는 단
두 음절 ‘까까’. 첫 ‘까’은 높고 둘째 ‘까’은 낮게 계속되는 단순
하고 간단한 그 음정(音程)이 그저 반갑다.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 소리를 좋아했다. 지금도 아침에 문을 나설 때 까치 소리
를 들으면 그 날은 기분이 좋다.

반포지은(反哺之恩)을 안다고 해서 효조(孝鳥)라 일러 왔지
만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좋다. 사랑 앞마당 밤나무 위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그것이 길조(吉兆)라서 그 해 안변
부사(安邊府使)로 영전(榮轉)이 되었다던가, 서재(書齋) 남창
앞 높은 나뭇가지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글재주가 크게
늘어서 문명(文名)을 날렸다던가 하는 옛 이야기도 있지만, 그
런 것과 상관없이 까치 소리는 반갑고 기쁘다.

나는 까치뿐이 아니라 까치집을 또 좋아한다. 높은 나무 위

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영성하게 엮어 놓은 것이, 나무에 그대로 어울려서 덧붙여 놓은 것 같지가 않고 나무 삭정이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소쇄한 맛이 난다. 영성하게 엮어 놓은 그 어리가 용하게도 비가 아니 샌다. 오직 달빛과 바람을 받을 뿐이다.

나는 항상 이답에 내 사랑채를 짓는다면 꼭 저 까치집같이 **소쇄한 맛이** 나도록 짓고 싶었다. 내가 완자창이나 아자창(亞字窓)을 취하지 않고 간소한 용자창(用字窓)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정서에서다. **제비집**같이 아늑한 집이 아니면 까치집같이 소쇄한 집이라야 한다. 제비집은 암전하고 단아한 가정부인이 매만져 나가는 살림집이요, 까치집은 쾌락하고 풍류스러운 시인이 거처하는 집이다.

비둘기장은 아무리 색스럽게 꾸며도 **장이지** 집이 아니다. 다른 새 집은 새 보금자리, 새둥지, 이런 말을 쓰면서 오직 제비집 까치집만 **집**이라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관념이나 정서를 알 수가 있다. 한국 건축의 정서를 알려는 건축가들은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인 듯하다. 요새 고층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건물들을 보면 아무리 고급으로 지었다 해도 그것은 '사람장'이지 '집'은 아니다.

지금은 아침 여덟 시, 나는 **정릉 안 숲**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 오래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나뭇잎들은 아침 햇빛을 받아 유난히 곱게 푸르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차갑게 맑다. 그간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물소리도 제법 크게 들려온다.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여길 와 본 적이 있었다. 보건 운동을 하러 온 사람,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붐비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윽한 숲 속이 한없이 고요하다. 지금이 제일 고요한 시간이다. 까치들이 내 앞에 와서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이른바 까치걸음이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는 데는 아무 관심이나 의구심도 없이 내 옆에서 **깡충깡충** 뛰놀고 있다.

나는 일찍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민화(民畵)** 하나를 생각한다. 한 노옹(老翁)이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그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신기한 그 상상화에 기쁨을 느꼈다. 민화란 어린이와 자유화(自由畵)같이 천진하고 기발한 데가 있어서 저런 재미있는 그림도 그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그것은 기발(奇拔)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이지봉(李芝峯)이 정호음(鄭湖陰)의 “산과 물이 바람에 소리치며, 강물은 거세게 울먹이는데, 달은 외로이 비쳐 있다.”는 시를 보고 ‘강물이 거세게 이는데 달이 외롭게’라는 건 실경(實景)에 맞지 않는다고 폄(貶)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달이 고요히 밝은 밤중에는 물결이 잔잔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김백곡(金栢谷)이 황강역(黃江驛)에서 자다가 여울 소리가 하도 거세기에 문을 열고 보니 달이 외롭게 걸려 있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구가 실경을 그린 명구(名句)인 것을 알았다는 **시화(詩話)**가 있다. 나도 그 민화가 실경인 것은 모르고 기상(奇想)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 그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의 민화 한 폭이 다시금 눈앞
[B] 에 뚜렷이 떠오른다.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누워
└ 서 잠자는 노옹(老翁), 그 배 위에서 있는 까치 한 마리.

- 윤오영, 「까치」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대상을 관조하며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사색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39.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A]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B]는 대상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 ③ [A]는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B]는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연이 지닌 역동적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사물을 매개로 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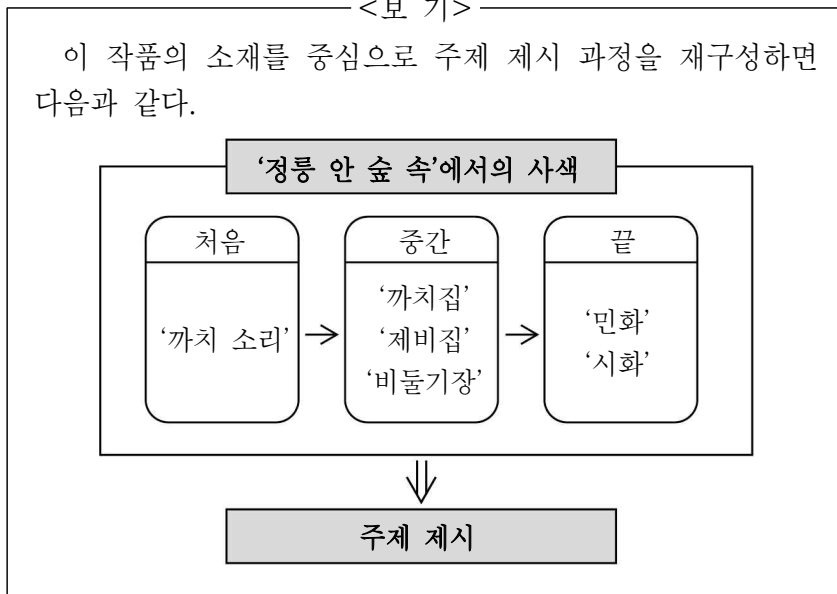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강호한정을 노래한 시조에서 사대부들은 세속적 삶을 멀리하고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만족해 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고산별곡」에서도 작가는 평생 관직에 몸담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사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특별히 이루어 놓은 일 없이 만년에 접어들었다는 작가의 안타까움도 작품 속에 담겨 있다.

-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청산’, ‘녹수’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만년에 느끼는 시름을 ‘일존주’로 달래려 하고 있어.
- ② <제3수>에서 화자는 ‘세로’의 삶과 달리 ‘백년소일’하는 ‘강산’에서의 삶을 긍정하며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 ③ <제4수>에서 화자는 ‘늪’, ‘손’의 평가와 상관없이 ‘고산 불고정’에서 지내는 삶을 통해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제7수>에서 화자는 ‘고초’하고 ‘담박’했던 생애를 긍정하면서도 ‘흰 술’에 만족해야 하는 현재의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어.
- ⑤ <제9수>에서 화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일륜명월’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어.

4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날 이른 새벽’의 경험과 대비되는 ‘정릉 안 숲 속’에서의 경험은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까치 소리’의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한 속성에 주목하여 ‘반갑다’라고 정서를 드러내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③ 까치에 이어 ‘까치집’을 떠올리면서 그 특성을 서술하고 ‘소쇄한 맛’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이 좋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까치집’에서 다시 ‘제비집’, ‘비둘기장’으로 소재가 이어지면서 ‘집’과 ‘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민화’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화’에 담긴 상반된 해석들을 비판하면서 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명 황제가 유문정을 보내시고 날마다 첩서를 기다리시더니 문득 표를 보시고 대경하사 즉시 승상 유기로 대원수를 명하시고 유문정을 도우라 하시니 유 원수가 하직하고 군사를 거느려 문정의 진에 이르니 문정이 반겨 적세 강성함을 이르고 장백 잡기를 의논할 새 유기가 문정더러 말하기를,

“이제 적병이 강성하여 졸연히 피하기 어려우니 이날 밤에 적병이 잠자기를 기다려 그대 삼만 명을 거느려 적진 우편을 치고 이덕으로 삼만 명을 거느려 적진 좌편을 치고, 나는 삼만 명을 거느려 전면을 치면 제 비록 용맹하나 어찌 당하리오?”

하고 약속을 정하고 밤을 기다려 방포일성에 사면으로 엄살하니 적장이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만나매 장 원수가 대경하여 급히 이정을 불러 말하기를,

“아까 천문을 보니 수상에 주성이 살기를 띠어 방위를 떠났으며 북병이 올 줄을 알되 어찌 이 같으리오?”

하고 풍백(風伯)을 불러 호령하니 풍우대작하며 벽력이 진동하니 명진이 도리어 황급하여 본진으로 돌아올 새 유 원수가 이덕을 거느리고 제쳐 들어가니 백운단이 맞아 싸워 십 합이 못하여 운단이 이덕을 베니 유기가 대로하여 바로 운단을 취하니 이정이 앞을 막아 유기를 치니 유기가 당치 못하여 본진으로 돌아오니 장백, 이정 등이 일시에 엄살하여 유문정을 생금(生擒)하여 가거늘 유기가 급히 본진으로 돌아와 관찰하여 머무니라. 장백이 문정을 잡고 대희하여 못내 즐기더라.

장백이 장중에서 졸더니 사몽간에 철관도사가 이르러 말하기를,

“너더러 이른 말을 어찌 잊었느냐? 천자는 곧 주 씨거늘 네 비록 옥새(玉璽)를 얻었으나 천명이 네게 있지 아니하거늘 공연히 민심만 소동케 하니 어찌 해를 면하리오? 하물며 황후는 너의 누이라 골육상잔(骨肉相殘)함을 알지 못하니 어찌 한심치 않으리오?”

[A] 하고 간데없는지라.

원수가 그 말을 듣고 심히 괴이히 여겨 생각하되,

“내게 과연 누이가 있더니 도적에게 잡히어 갔다가 옥을 볼까하여 소상강에 익사한 지 벌써 십 년이라. 이따금 생각하여 사후나 만남을 원하더니 이제 선생의 가르치심이 약차(若此)하시니 실로 괴이하도다.”

[B] 하였다.

군중에 호령하여 군사를 쉬게 하고 문정을 잡아들여 서안을 치며 크게 꾸짖기를,

[C] “내 벌써 원 황제를 잡아 항복 받고 옥새를 가졌거늘 네 거짓 황제를 내고 천병을 항거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문정이 노하여 꾸짖기를,

① “우리 황상이 성신문무(聖神文武)하사 먼저 장안에 들어와 추호를 범치 아니시고 대위(大位)에 오르시며 벌써 국호를 정하시고 장 씨를 취하여 황후를 봉하시니 굳음이 반석같거늘, 너는 부질없는 군사를 일으켜 만대에 더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빨리 죽이지 무슨 말을 하나뇨?”

장 원수가 대로하여 즉시 죽이고자 하나 황후가 장 씨란 말을 듣고 선생의 말을 생각하며 노여움을 그치고 아직 진중에 두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적장이 장 씨는 소식을 들은 황후는 그를 보러하고, 이에 명 황제 주원장은 잔치를 열어 장백을 부르코자 한다.

‘승상 유기는 글월을 장 원수께 전하나니 우리는 남쪽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장군은 서쪽에서 군사를 일으킴에 천하 명장이 쫓기를 원하는지라. 무도한 원제를 내치고 창업고자 함은 피차일반이나 하늘이 먼저 주 천자를 뒤희게 하였으니 실로 임자 있음을 알거니와 명 황제 먼저 장안을 얻으시니 그 공이 크고 장군은 옥새를 취하였으니 또한 큰 공이라. 이따금 황제 대의를 생각하시고 이곳에 대연을 배설(排設)하여 모든 장졸로 그 공을 표하고자 하나니 장군이 만일 혐의치 아닐진대 한번 이르러 즐거움이 어떠하뇨?’

장 원수가 글을 끝까지 읽어 본 후 제장과 의논하기를,

“적진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나를 청하니 무슨 흥계 있음을 알지 못하나 아니 가면 약함을 보임이라. 그러나 어찌 저를 두려워하리오?”

하고 이정으로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고 명진에 이르니 유기가 진문을 크게 열고 장 원수를 맞아 들어가니 양진이 상합하매 살기충천하더라.

명제가 맞아 동서로 나누어 앉으니라.

이때 황후가 주렴 사이로 자세히 보니 과연 장백이나 신수가 건장하여 어려서 보던 모습이 변하나 성음(聲音)이 익은지라. 반가운 중 눈물 남을 깨닫지 못하더니 홀연 대풍이 일어나 주렴을 거두치니, 장백이 술잔을 받다가 눈결에 황후를 보고 그 얼굴이 누이와 같음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거늘 명제가 그 연고

를 물은대 장백이 탄식하기를,

㉠ “우리 서로 적국 되어 천하를 다투매 사정을 이룰 바 아니로되 소장이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남매 의지하여 지내더니 동리 노고의 흥계에 빠져 외가로 가더니 중로에 도적을 만나 누이를 잃으매 그때 소장의 연유하므로 따르지 못하고 망극한 중 집에 돌아와 살기를 원치 아니하더니, 세월이 여류(如流)하여 지금까지 목숨을 보전하나 매양 누이를 생각하면 서러워하더니 아까 대풍에 주렴 중 부인을 보매 누이와 방불하기로 자연 비참하도소이다.”

상이 답을 하기 전에 황후가 이 말 듣고 좌우를 물리고 급히 나와 장백의 손을 잡고 방성대곡하며 오래도록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네가 내 동생 장백이냐? 그 사이 죽었더냐 살았더냐?”

그때 도적에게 잡히어 갈 때에 중로에서 잃고 어찌할 줄 모르더니 소상장 원혼을 면하고 자연 구하는 사람을 만나 부지하던 말이며 전후사를 이르니 장백이 슬퍼하며 희한하게 살아나 이처럼 만남을 신기히 여기고 즉시 계하에 내려 복지하며 옥새를 올려 말하기를,

[D] “나의 누이가 죽은 줄로 슬퍼하였더니 하늘의 도움을 입어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상이 그 처지를 혐의치 아니하고 황후를 삼으시니 은혜 망극하온지라. 수삼 년 전쟁에 민심을 요란케 하오니 만사무석(萬死無惜)하온지라. 복망 폐하는 진을 건우사 환궁하심을 바라나이다.”

[E] 상이 장 원수가 돈수사죄(頓首謝罪)하고 옥새를 올리는 것을 보시고 환희하사 위로하기를,

“짐이 이제 제업을 이루었으니 경의 공이 아니면 어찌 이 에 이르리오.”

- 작자 미상, 「장백전(張伯傳)」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 대결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상징적 배경을 설정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초월적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신이한 존재와의 대립을 통해 인물의 비범함을 부각하고 있다.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백은 천문을 통해 적병이 쳐들어 올 것을 예상했다.
- ② 문정은 유기의 지원을 받아 적을 급습했으나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 ③ 유기는 장백과 황제의 공적을 언급하고 장백의 우세함을 인정하였다.
- ④ 황후는 과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조력자를 만나 목숨을 건졌다.
- ⑤ 주 씨는 제업을 이루게 되자 그 공을 장백에게 돌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4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꾸짖으며, ㉡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은 지난 일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은 일어난 일을 예측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원망하고 있다.
- ③ ㉠은 다른 대상과 견주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은 개인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도덕적 가치를 판단의 근거로 내세워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내세워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천명(天命)’은 인간에게 내리는 하늘의 명령으로 인간이 임의로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운명이다. 「장백전」에서 주원장은 대명 건국이라는 천명을, 장백은 황제가 될 사람을 찾아 그를 도와야 하는 천명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자신의 천명을 알고도 장백은 이를 부정하며 주원장과 황제의 자리를 두고 대립하게 되지만, 결국 천명에 따라 주원장과 화합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남매의 이별과 상봉이라는 작품 내적 장치는 두 인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① [A]에서 장백의 꿈에 나타난 철관도사는 장백이 품고 있는 계획이 천명에 어긋나는 일임을 환기시켜 주고 있군.
- ② [B]에서 장백은 누이와 이별하게 된 사연을 떠올리며 천명을 거스르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있군.
- ③ [C]에서 장백은 원 황제에게서 확보한 옥새를 천명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으면서 황제가 될 인물이 자신임을 밝히고 있군.
- ④ [D]에서는 누이를 만난 장백이 주원장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남매 상봉이 천명을 수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에서는 주원장에게 옥새를 올리는 모습을 통해 장백이 결국 절대적 운명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018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③	5	②
6	⑤	7	④	8	①	9	④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①	15	①
16	⑤	17	⑤	18	⑤	19	①	20	①
21	②	22	⑤	23	④	24	②	25	②
26	①	27	④	28	③	29	①	30	②
31	③	32	④	33	②	34	④	35	⑤
36	②	37	③	38	③	39	⑤	40	④
41	⑤	42	①	43	③	44	③	45	②

[22 ~ 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에 호국 강변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용이요 명은 훈이니, 대대로 명가(名家)의 자손이라. 본래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강호에 놀기와 동산에 밭 갈기를 일삼으나, 다만 슬하에 자식 없음을 부부 매일 한탄하기를 마지아니하더니, 일일은 용훈이 양친 탄 왈,

“대대로 무후(無後)치 아니하더니, 내게 와서 후사가 끊일 줄을 어찌 알리오.”

하며 자탄함을 마지아니하거늘, 부인 관 씨 대 왈,

“불효 삼천에 무후한 죄 크다 하오니, 옛법으로 의논컨대 첩을 내침 직하오나 군자의 후하신 덕을 깊이 생각하와 지금 존문에 의탁하였으나, 봄날에 살얼음판을 디딘 듯하와 어찌 마음이 안연하리이까. 잠깐 듣사오니 태항산 천축사라는 절에 올라가오면 삼불이 극히 영험하시다 하오니, 고단함을 생각지 마시고 첩으로 더불어 정성으로 발원코자 하나이다.”

용훈이 왈,

“빌어 자식을 낳을진대 천하에 무자(無子)한 자가 누 있으리까. 그러하오나 한스러운 인생이오니 세존에게 정성으로 발원하여 보사이다.”

하고, 즉시 태항산 천축사에 올라가 전조 단발하고 삼칠일 목욕재계 후에 불전에 공양 축원하며 반년이나 지내니 외려 산속의 절에서 불도를 닦는 독실한 속인이겠더라.

일일은 부인 관 씨 일몽(一夢)을 얻으니, 동해에서 동자 일인이 올라와 부인에게 세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는 천상 삼십삼천 도인도 차지하옵는 신장(神將)이옵더니, 옥황의 명을 받자와 ‘홍해국 태자를 베라’ 하교하시매 그 명을 받들었지만, ‘정말 가서 베고 왔는지 믿지 못하겠다’ 하시고 세상에 내치시매 갈 바를 아지 못하옵더니, 마침 천축사 세존께옵서 ‘부인에게 의탁하라’ 하시오매 왔사오니, 부인은 어여삐 여기소서.”

하거늘, 부인이 반가이 여겨 품 안에 안다가 깨니 남가일몽이라. 즉시 용훈을 깨워 몽사를 여쭙으니, 용훈이 크게 기뻐 즉시 집으로 내려와 생남(生男)하기를 바라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칠 삭 만에 생남하매, 용의 기상이요, 범의 머리며 곰의 등이요, 용의 허리며 잔나비의 팔이라. 소리 웅장하여 큰북 소리 같고, 비록 강보에 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빨이 두 줄로 박히고 앞니가 밖으로 한 치나 내밀었으니, 훈이 크게 기뻐 왈,

“이 아이 기상을 보오니 옛날 명인의 풍도를 간직하였으매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하고 이름을 문이라 하고 자는 벽력이라 하였다.

(중략)

연화 도사 왈,

“이 아이 상을 보니 반드시 귀인이 될 것이니, 부자 정리에 떠나보내기 애달프겠지만 천명을 어기지 말고 노인에게 말기시면 장래 귀히 되리이다.”

훈이 다시 일어나 절하고 여쭙오되,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선생께옵서 귀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며 즉시 용문을 허락하거늘, 도사 용문을 데리고 ㉠ 연화산에 들어가 천문 지리, 육도삼략과 황석공의 방법을 팔 년을 가르치니,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지간 영웅 준걸이라.

도사 왈,

“이제는 술법을 배웠으니 대업을 이룰지라. 빨리 돌아가 빛

난 재주를 세상에 베풀고 어진 성군을 만나 웅장한 이름을 천추에 전하도록 하라. 성군을 만나지 못할진대 너의 선생을 용납하게 말라.”

하니 용문이 두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 팔 년을 선생 문하에 머물러 높은 재주를 배웠사오니, 어찌 선생의 교훈을 일본이나 어기리이까.”

하고 하직을 아뢰니 도사 왈,

“부디 좋은 때를 잃지 말라.”

하시더라.

용문이 산문 밖에 나와 부모께 뵈오니, 부모가 크게 기뻐 팔 년 그리던 정을 못내 애연하더라. 인하여 용문이 선생 말씀을 날날이 여쭙니, 용훈의 부부 연화 도사를 향하여 은혜를 못내 칭찬하더라.

용문이 일일은 ㉡ 강변에 나아가 명량한 달빛을 따라 배회하더니, 먼 데서 크게 불러 왈,

“내 말이 사나와 내 자식을 물어 죽이고 강을 건넜으니, 그 말을 잡아 주면 은혜를 갚으리라.”

하거늘, 용문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과연 말이 강변에 섰오되, 높기는 칠 척이요 눈은 방울 같고 몸이 불빛 같더니 진실로 적토마라. 용문이 크게 기뻐하거늘,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말을 장군께 드리러 왔나이다. 이 말은 능히 운무를 따르며 한번 채치면 능행만리하고 한번 소리를 한즉 태산과 하해가 뒤놓는 듯하니, 마땅히 장군의 재주를 베풀지라.”

하고 말을 마치며 문득 간 데 없거늘, 심중에 크게 기뻐 즉시 말에 올라 시험할새 적토마 한번 소리하며 네 곱을 놀리니, 빠르기 살과 나는 제비라도 미치지 못할러라. ㉢ 한곳에 다다르니 층암절벽상에 한 동자가 머리에 벽도관을 쓰고, 몸에 청룡포를 입고 암상(巖上)으로 내려와 읊하여 왈,

“소자는 천상 옥황상제의 명을 받자와 전장 기계(戰場器械)를 장군에게 전하나이다. 차후에 은혜를 잊지 말으소서.”

하고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용문이 괴이히 여겨 동자가 섰던 곳으로 나아가 보니, 석함(石函)이 놓여 있으되 광채 찬란하고 전면에 금자로 새겼오되,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 친집개탁하라’ 하였거늘, 용문이 생각하되, ‘우리 대대로 호국 사람인데 석함에 명국 대사마 장군이라 하였으니, 유유한 천의를 알지 못하거니와 호국 왕상이 천의를 범코자 하기로, 하늘이 나를 호국을 배반하고 명국에 돌아가 대장이 되게 하온 일인가, 명국을 내 함몰하고 통합하게 하온 일인지 장래를 보자.’ 하고 강을 향하여 사례하고, 갑주를 갖추고 용천검을 들며 말에 올라 산하에 내려와 청수강을 바라보며 말을 채쳐 재주를 시험하니, 적토마가 한번 슯으며 소리하니 천지가 무너지는 듯하며 검광은 일월을 희롱하는지라.

- 작자 미상, 「용문전」 -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문은 호국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호국의 명가이다.
- ② 용훈은 본디 입신양명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 ③ 용훈 부부는 용문의 말을 듣고 연화 도사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꼈다.
- ④ 용훈 부부는 태항산 천축사에 머물며 반년 동안 삼불에게 발원하였다.
- ⑤ 신장은 옥황상제의 명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24. <보기>를 읽고 윗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장치들이 활용된다. 가령 꿈을 통해 주인공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거나 특이한 외양을 타고나도록 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신물을 전해 주거나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 ① 관 씨의 태몽을 통해 용문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갓 태어난 용문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용문의 영웅성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육도삼략과 병법 등을 용문에게 가르치는 연화 도사를 등장시켜 용문이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④ 적토마를 전달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용문이 천상계 인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군.
- ⑤ 벽도관을 쓴 동자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용문에게 전장 기계를 전달해 용문이 영웅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군.

25.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화 도사에게 훈육을 간청하기 위해 용훈은 용문을 데리고 ㉠에 들어갔다.
- ②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관심을 끈 후 용문을 찾아온 의도를 밝혔다.
- ③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은혜에 감사하며 석함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용문은 ㉣에서 호국을 버리고 명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⑤ ㉠은 용문이 현실에서 노니는 공간이고, ㉣은 꿈속에서 체험한 공간이다.

[26 ~ 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8년 만에 제주도를 찾는다. 제사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순이 삼촌’(제주도에서는 혼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삼촌’이라고 부름.) 이야기를 나누며 30년 전 마을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다시 떠올린다.

그의 속삭이는 말로는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 쇠약 환자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환청 증세까지 있어 시골에 있을 때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보지도 않은 흙을 왔다고 따지고 들기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밥 많이 먹는 식모’라는 것도, 우리에게 품은 오해도 모두 환청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역시 그랬었구나. 옆에서 얘기를 듣던 아내는 방정맞게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다.

당신의 신경 쇠약은 지독한 결벽증과도 서로 얽힌 것인데 이런 증세는 꽤나 해묵은 것이라고 했다. 그건 사오 년 전 콩 두 말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얻은 병이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멍석을 피고 내다 년 메주 [A] 콩 두 말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혐의를 평소애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 놓았다. 두 집은 서로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집 여편네가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끌었던 모양인데 파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변에 기가 죽으면서 거기는 못간다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히 당신이 콩을 훔친 것으로 소문나 버릴 밖에. 당신이 그전서부터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괴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 온 터였다.

(중략)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 일제 사격 총소리가 콩볶듯이 일어나곤 했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 형도 나도 울었다. 우익 인사 가족들도 뉘 놓고 영영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외양간에 매인 채 불에 타 죽는 ㉡ 소 울음소리와 말 울음소리도 처절하게 들려왔다. 중년부터 시작된 이런 아수라장은 저물녘까지 지긋지긋하게 계속되었다. 길수 형이 말했다.

“그때 혼자 살아난 순이 삼촌 허는 말을 들으란, 군인들이 일주 도로변 옹팡진 밭에다가 사름들을 밀어붙였는데, 사름마다 밭이 안 들어가젠 밭담 우엔 엮디어전 이마뺨을 쪼사 피를 찰찰 흘리며 살려 달랜 하던 모양입니다.”
 “쫓쫓쫓, 운동장에 뱉겨져 널려진 ㉢ 임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아 놓으면 아마도 가메니로 하나는 실히 되었을 거여. 죽은 사람 몇 백 명이나 되까?”

하고 작은 당숙이 말하자 길수 형은 낮을 모질게 찌푸리며 말을 씌어뻘었다.

“면에서는 이 집에 고구마 땃 가마 내고 저 집에 유채 땃 가마 소출 냈는지는 알아 가도 그날 죽은 사람 수효는 이날 이때 한 번도 통계 잡아 보지 않으니, 내에 참. 내 생각엔 오백 명은 넘은 것 같으니, 한 육백 명 안 되까 마썰? 한 번에 오륙십 명씩 열한 번에 몰아가시니까.”

열한 번째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운수 대통한 사람들이었다. 때마침 대대장 차가 도착하여 총살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 불행한 사건에도 예외 없이 ‘만약’이란 가정 이 따라왔다. 만약 대대장이 읍에서부터 타고 오던 지프차가 도중에 고장만 나지 않았더라면 한 시간 더 일찍 도착했을 터이고, 그렇게 되면 삼백 명이나 사백 명은 더 살렸을 것이다. 따라서 희생자는 백 명 내외로 줄어든 것이고, 또 적에게 오염됐다고 판단된 부락을 토벌해서 백 명 정도의 이적 행위자를

사실했다면 그건 수궁할 만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피살자 육백 명이란 수효는 ㉔ 옥석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격을 의미했다.

“고모부님, 대대장이 말한 차 고장은 핑계가 아니까 마썸? 일개 중대장이 대대장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이서 마썸?”

고모부는 그 당시 토벌군으로 애월면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할 터였다. 고모부는 한때 인근 부락인 함덕리에 주둔했던 서북청년으로만 구성된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㉕ 마침 사건 수개월 전에 애월로 이동해 갔던 것이었다. 신혼 초라 고모도 따라갔었다.

“그 당시엔 중대장 즉결 처분권이란 것이 있을 때였쥬. 또 가들이 전투 사령부의 작전 명령에 따라 행동했던 해도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하였을 공산이 커. 난 줄병 생활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것도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의 일부일 거라. 쉬운 말로 소개 작전이란 거쥬. 견벽청야 작전이란 것이 뭐냐면 손자병법에서 따온 것이라는데, 공비를 소탕할 때 먼저 토벌군으로 벽을 쌓아 병풍을 만들고 그 후 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거라. 산간벽촌을 일일이 다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닌단 말이여. 그러나 일정한 거점만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려 공비가 발붙일 여지가 없게 하자는 궁리이었쥬. 그런데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리라는 대목에서 그만 잘못 일이 글러진 거라. 작전 지역 내의 인원과 물자를 안전 지역으로 후송하라는 뜻이 인원을 전원 총살하고 물자를 전부 소각하라는 것으로 둔갑하고 말아서니 말이여.”

“아니, 고모부님도 참, 그 말을 끝이들었수파? 그건 웃대거리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 우리 부락처럼 때죽음당한 곳이 한둘이 아니고 이 섬을 뺀 돌아가 명 수없이 많은데 그게 다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우파? 말도 안 되는 소리우다. 이 작전 명령 자체가 작전 지역의 민간인을 전부 총살하라는 게 틀림 없어 마썸.”

- 현기영, 「순이 삼촌」 -

- ③ ㉔: 운동장에서 끌려 나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④ ㉕: 운수가 좋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핑계 삼아 무차별 사격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⑤ ㉔: 고모부는 당시 운동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강렬할 경우, 이 기억은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과 공유되면 기억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기억은 같은 사건이라도 기억 주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억과는 다르게 구성된 가해자들의 기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들의 기억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된다.

- ① ‘전투 사령부’의 ‘견벽청야’ 명령은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스스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나중에 꾸며낸 것이겠군.
- ② ‘길수 형’이 ‘순이 삼촌’에게 전해 들은 ‘그때’의 사건을 방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피하는 ‘순이 삼촌’의 모습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그건 웃대거리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이라는 말에는, 가해자들의 기억을 구성한 논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당시 토벌군이었던 ‘고모부’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길수 형’이나 ‘나’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피해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겠군.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의 진술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감각적으로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A]는 공간을 병치하는 방식을 통해, [B]는 시간을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⑤ [A]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직접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27. ㉑~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읍광진 밖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참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㉔: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38 ~ 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네는 양주(楊州) | 소유히여
 디위에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성덕(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운더* 당금성(當今景) 잣다운더
 성수만년(聖壽萬年)흐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룡다리
 알핀 한강수(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어
 덕등(德重)흐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 신도형승이샷다: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 잣다운더: 도성답구나.
 * 함락이샷다: 함께 즐거워하다.

(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늠연(凜然)한*** 줄 반가온더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얹다**
 어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페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다다
 하물며 **그옥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려세라**
 어찌서 **청풍(淸風)을 반겨** 혼덕혼덕* 하나니
 <제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 늠연한: 위엄이 있고 당당한.
 * 번페하고: 마다하고.
 * 혼덕혼덕: 흔들흔들.

(다)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맘에 먹을 감는 한 시간 남짓
 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
 레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며,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
 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현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들충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
 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뜯 눈과 부르건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
 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쩍하고, 사지는 울퉁
 불퉁한 새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며,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
 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군데 빈 곳 없
 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통통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간으로 구분되었고, 각 간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궂고, 능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
 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

(중략)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
 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았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네들
 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난 신품이 아님
 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 끝이 적어 끄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
 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 하늘 모양으로 궁륭상
 (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핑결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
 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흰하거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띄엄띄엄 들레들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
 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곱실곱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살이 동실동실 동해를 떠나오
 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
 는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 현진건, 「불국사 기행」 -

* 궁륭상: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9.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늪연한 줄 반가운데'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 ④ (나)의 '대숲이 푸르러세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네는 양주 | 소홀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쟁'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 ② '신도형승이샅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 ③ '기국성왕이 성터를 니르어샅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 ④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 ⑤ '만세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41.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 석가상의 온화한 얼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나, ㉣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는 서해 **빨**을 적시는 노을 속에
 서 본 적이 있는가
 망망 빨 밭 속을 헤집고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 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쇠북 소리를 듣는다
 만권의 책을 쌓아 올렸다는 채석강 절벽
 파도는 다시 그 만권의 책을 풀어 흘러
 빨 밭 위에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
 이곳에서 **황혼**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망으로 던져
 내소사 대웅보전의 **낙살문 연꽃 몇 송이도**
활짝 만개한다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청동 까지 한 마리도
 만다라*와 같은 불립 문자로 탄다
 곱소의 빨 강을 건너 **소금을 저 나르다** 머슴 등허리가 되었다는
 저 소요산 질마재도 마지막 술 빛으로 익는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해는 수평선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 송수권, 「대역사(大役事)」 -

* 만다라: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망라한 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

(나)

젓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
 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
 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확확 후리
 거나,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
 를 타고 내려가, 칠혹 **망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살
 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
 내는 **망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댓바
 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대상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으로 대상을 불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은 작품의 주요한 체제로 사용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빨'을 대개로 '바지락을 캐는' 것과 '소금을 저 나르'는 것을 연결한 것은 '대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황혼'이 '사망으로 던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낙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하는 것은 만물이 서로 화답하고 교감함을 나타내고 있군.
- ③ (가)에서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은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자연이 위로를 건네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젓은 바람 속'에서도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 겨울 나뭇가지의 모습은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음을 드러내고 있군.

4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지들'이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둥치'는 감나무의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춧기둥'의 역할을 하는군.
- ③ '새'는 '실가지 하나에 앉'아 나뭇가지가 '그 무게를 견딜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 주고 있군.
- ④ '망속'이 지닌 '칠혹' 같은 어둠의 이미지는 '산 가지'의 '어떤 댓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과 대비되고 있군.
- ⑤ '망심'이 베풀어 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18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⑤	3	②	4	③	5	③
6	④	7	①	8	④	9	④	10	⑤
11	②	12	③	13	②	14	③	15	③
16	④	17	④	18	①	19	⑤	20	①
21	②	22	⑤	23	⑤	24	④	25	②
26	⑤	27	④	28	①	29	①	30	③
31	②	32	①	33	①	34	③	35	②
36	③	37	②	38	①	39	⑤	40	③
41	⑤	42	⑤	43	②	44	④	45	④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의 대학 재학 시기 역시 학생 시위가 빈발하던 한일회담 진행기를 전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위 이야기에 관한 그의 회상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이고 있었다. 그는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노라는 주장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교문을 뛰쳐나가려던 쪽이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쪽에 기억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교문을 나가려 했던 쪽은 아예 기억조차 들추려 하지 않거나, 그 자신도 어찌면 그걸 까맣게 망각해 버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과 불평 가운데서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는 학교 시절 이야기에 한동안 열을 올리다가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은행 시절까지 훌쩍 말을 비약해 버리는 일이 흔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섭에게는 이미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곤 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는 끝끝내 그 교문을 맘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전 그보다도 더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 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행 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심한 소동을 벌인 것이 사실은 그 화성인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 문이 아니라 은행 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는군요. 아마 선생님은 그 기본 모르실 겁니다. 하하..... 뭐랄까..... 선생님은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텐 줄 아십니까? 철창문을 가운데로 척 가로막아 놓고, 그 철창문 양쪽으로 한쪽에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한쪽에선 이미 그 철창문 안에다 자리를 잡아 놓고 바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설 새 없이 틈입자들을 감시하고 그자들을 내쫓을 채비를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살벌한 대치장 같은 곳이지요. 안쪽 사람들은 그 채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회 있으시면 선생님도 언제 그 사람들이 싸움에 대비하고 있는 완벽한 포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앞쪽 쇠창살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한 제일 방어선은 은행원들 중의 제일 쫓자들이 맡고 있어요. 그다음 제일 선에서 그 쫓자들을 지휘 독전할 자리는 대리급 위인들이..... 그런 식으로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지요. 이렇게 되면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은 쇠창살 밑의 쫓자들 처지임이 뻔하지요. 싸움만 벌어졌다 하면 제일 먼저 제물이 되어야 할 친구들이 바로 그 작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틈만 나면 늘 한 발이라도 뒷줄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싶어 안달 아닙니까. **승진**이라는 게 뭐니까. 승진이라는 게 바로 그 일선 창살 아래서 한 발이라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걸 바라지요. 그리고 좀처럼 해선 마음을 못 놓습니다. 싸움이 촉박하면 촉박해질수록 말입니다. 그런 점을 꾀 알아차리고 보면 우리가 학교 시절에 그토록 열심히 시위를 벌이면서 소망한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은행 사무실의 그 회한하고도 음흉스런 좌석 배치의 비밀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겉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가 함부로 감행되고 있는 얘기였다.

손 박사는 그레 어느 날 마침내 윤일섭의 전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었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잦았던 데다 윤일섭의 그런 점포 얘기 가운데는 그에게도 분명하게 짚여 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략 줄거리] 윤일섭의 증세가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본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증이 호전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윤일섭은 쇠울타리 속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다가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심을 품게 된다.

[A]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쉬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없는 거 것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피어던 셈이었다. 참으로 쾌쩍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 이청준, 「황홀한 실종」 -

27.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③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윤일섭이 '쇠창살'과 관련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손 박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② ㉠은 '교문'에 대한 윤일섭의 왜곡된 기억이 '마음속의 쇠창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손 박사의 생각을 드러내 준다.
- ③ 윤일섭은 자신을 '쇠창살' 밖으로 내몰려는 손 박사의 음모가 ㉠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 ④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은 정작 '쇠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은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고 비판한 손 박사의 생각에 상응하는 것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황홀한 실종」에서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에서 여러 번 탈락한 후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동물원의 쇠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자기 스스로를 유패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윤일섭의 태도에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승진'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윤일섭의 모습은, 체제 속에서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자아의 욕망과 연결된 것이겠군.
- ③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놓지 못하는 윤일섭의 모습에서, 체제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과거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윤일섭의 각성은, '문 안쪽'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를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라고 한 윤일섭의 말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엿볼 수 있겠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김진옥은 승전 후 귀국하던 도중 풍랑으로 표류했다가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된다. 남해 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진옥은 등국 용왕을 물리친다. 이때 무양 공주는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선영, 정동한 등과 계교를 짜 김진옥의 아내 유 부인과 아들 애운을 죽이려 한다. 용궁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려 한다.

용왕 왈,

“이는 수중의 귀한 보배라.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엄동설한이라도 춥지 않을 것이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칠십이 넘도록 녹발(綠髮)이 장춘(長春)이요, 또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환생하나니, 이는 극한 보배로소이다.”

원수가 사양하다가 받으니, 용왕 왈,

“원수는 대국의 신하라. 수부에 들어와 과인의 수부를 보전케 하니, 어찌 천자에게 현신을 두신 치하를 아니하리오.”

하고, 글월을 닦아 원수께 부치고, 예단을 봉하여 주니, 원수가 사례하고 받으니, 일광노가 왈,

“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하리오.”

하고, 일광주(日光珠) 한 낱을 주고, 여동빈은 또 한 낱 부채를 주어 왈,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운무가 자욱하고, 비 올 때에 부치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나니, 이는 큰 보배라. 그대로 잘 간수하라.”

하고, 두목지는 칼 하나를 주며 왈,

“이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낮 같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할지니 가져가소서.”

이적선이 또한 금표통(金瓢桶) 하나를 주며 왈,

“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분주라 하는 술이 있으니, 천만인이 먹어도 진(盡)치 못하나니 가져가라.”

하니, 원수가 받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별하고 용왕께 하직하고 부친을 모셔 길을 떠나 황성으로 향하여 오더라.

각설, 차시에 무사가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애운이 통곡 왈,

“우리 모친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로 데려가노. 우리 모친도 야속하시도다.”

하며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잔인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달래어 왈,

“진실로 가련하다. 천자의 명이 급하시니 우리 어찌 거역하리오.”

하고,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가니, ㉠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 소소(昭昭)한 창천(蒼天)이 굽어살피실지라.

용왕이 그 강의 용신(龍神)에게 칙지를 내리사 물에 들어온 아이를 살리라 하시니, 용신이 오직 칙지를 받자와 물 밖으로도 내치니, 애운이 정신이 아득한 중 물을 무수히 토하고 모친을 부르고 동서로 방황하더라.

(중략)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車上)에 실으려 하니, 난영이 소저를 붙들고 슬피 통곡하여 왈,

“가련하고 애닦을사, 유 부인 같은 요조숙녀 이렇게 참혹히 원사(冤死)할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요. 천지신명과 일월성신과 황천후토(皇天后土) 굽어살피옵소서.”

하고, 낭자를 붙들고 방성통곡하며, 남녘을 멀리 바라본들 그림자나 있으리요.

한참 이렇듯 혈난할 제, 선영과 동한 등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바빠 배라.’ 재촉이 성화 같으니, 무사가 달려들어서 수레를 재촉하더라.

각설,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하여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 대답 왈,

[가] “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도사공으로 하여금 계명(鷄鳴) 전에 다 올려 가게 했사오니,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가내하*로소이다.”

원수가 차연을 듣고 양천 탄식하며 화산을 향하여 배례 왈, “이 강은 길이가 만 리요, 너비가 삼십 리라. 몸에 날개가 없으니 어찌 건너리이꼬. 선생은 진옥의 사정을 급히 살피소서.”

하고 무수히 배례하더니, 이때 화산 도사가 천지 산간에서 낭자를 죽이려 하는 거동과,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대경하여 급히 조화를 부려 일엽소선을 지휘하여 빨리 강변에 닿으니, 원수가 대회하여 그 배를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회 종남산을 바라고 말을 짓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안 삼거리에 무수한 사람이 삼대같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오색 기치를 세우고 한 수레 위에 한 부인을 달았거늘, 원수가 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부인이로다.’

하고 급편을 들어 말을 치니, ㉢ 이 말은 비룡마(飛龍馬)라. 순식간에 살같이 달려 법장(法場)에 다다라 살펴보니, 부인은 기절하였고 무사는 시각을 기다릴 제, 한 대장이 비룡마를

타고 나는 듯이 달려들어 일진(一陣)을 헤치고 수레를 박차며 남자를 안고 슬피 울거늘, 정동한 등이 대경실색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남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진정하여 울며 왈,

“부인아! 부인아! 김진옥이 여기 왔나니, 부인은 정신을 수습하십시오.”

하니, 이때 애운이 곁에 앉아 울며 왈,

“한강수에 빠져 죽었던 애운이 여기 왔나이다. 모친은 진정 하옵시고 부친을 뵈옵소서.”

하고, 얼굴을 한데 대고 뒹굴며 통곡하니, ㉠ 천지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피하더라.

㉠ 남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오.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통하며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운의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원수가 그 모자의 경상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천하여 동한 등을 잡아 급히 죽이려 하되, 일반 대관(大官)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십분 인분(仍憤)하고 오직 부인을 구호하여 집으로 돌아오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 무가내하(無可奈何): 달리 어찌할 수 없음.

34.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 부인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 부인을 구했다.
- ② 김진옥은 유 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한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용왕은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고 있다.
- ④ 난영은 유 부인이 억울하게 죽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
- ⑤ 애운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무사는 애운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다.

35. [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난관에 처한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여 주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심정과 조응하는 배경을 묘사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상황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나타내어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주인공과 주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나타내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알려 주고 있다.
- ⑤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제시하여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진옥전」은 이질적 세계라 할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중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 둘째,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제시하여 두 세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①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김진옥이 ‘진주’를 활용하여 유 부인을 살리는 것은,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재를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김진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전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은,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건을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은,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김진옥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내 두 세계의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7.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과 ㉣ 모두 독자로 하여금 뒤이어 일어날 사건을 짐작게 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인물의 처지에 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山水間)에 절로 늙어
공명부귀(功名富貴)를 뜻 밖에 잊었으니
 차중(此中)에 청유(淸幽)한 흥미(興味)를 혼자 좋아 하노라
 <제1수>

조그만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혼자 있어
 청풍명월(淸風明月)을 벗 삼아 누웠으니
 세상(世上)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나는 몰라 하노라
 <제2수>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리실새
 조그만 초당(草堂)을 시내 위에 일워 두고
 목전(目前)에 보이는 송죽(松竹)아 **내 벗인가 하노라**
 <제4수>

산림(山林)에 들어온 지 오래니 세상사(世上事)를 모르노라
 ㉠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물외(物外)에 뛰어난 몸이 보은(報恩)이 어려워라
 <제5수>
 - 이홍유, 「산민육가」 -

(나)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포자(單瓢子)로 친리 강산을 들어를 가니, ㉢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 일도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한데,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이 좋을씨고. 도화 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 축수 애삼춘(魚舟逐水愛三春)이거든 **무릉도원이 예 아니나**.

(중략)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팔팔, 수정럼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쫄쫄,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친방져 지방져 소쿠라지고 평퍼져, 년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나.

주곡제금*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일출 낙조가 눈앞에 벌어나 **경개 무궁(景概無窮)** 좋으씨고.

- 작자 미상, 「유산가」 -

* 소부 허유(巢父許由) : 중국 요순시대에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인물들.
 * 주곡제금(奏穀啼禽) : 두견새.
 * 적다정조(積多鼎鳥) : 소쩍새.

(다)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에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운 줄은 몰랐다. 문 형은 몇 번이고 탄복하면서, 흡사히 동양화의 화폭 속을 거니는 감흥을 그대로 맛본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도 한 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 다리는 줄기요, 팔은 가지인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훨훨 벗어 꼭 꺾어짜면, 물에 헹구면 빨래처럼 진주홍 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다.

그럼 같은 연화담(蓮花潭) 수렴폭(垂簾瀑)을 완상하며, 몇 십 굽이의 석계(石階)와 목간*과 철삭*을 답과하고 나니, 문득 눈앞에 막아서는 무려 삼백 단의 가파른 사다리다리 — 한 층계 한 층계 한사코 기어오르는 마지막 발걸음에서 시야는 일망무제(一望無際)로 탁 트인다. 여기가 해발 오천 척의 망군대(望軍臺) — 아! 천하는 이렇게도 광활하고 웅장하고 숭엄하던가!

이름도 정다운 백마봉은 바로 지호지간(指呼之間)에 서 있고, 내일 오르기로 예정된 비로봉은 단걸음에 건너될 정도로 가깝다. 그 밖에도 유상무상(有象無象)의 허다한 봉들이 전시(戰時)에 할거(割據)하는 영웅들처럼 여기에서도 우뚝 저기에서도 우뚝, 시선을 낮춰 아래로 굽어보니, 발밑은 천인단애(千仞斷崖), 무한제(無限際)로 뚝 떨어진 황천 계곡에 단풍이 선혈(鮮血)처럼 붉다. 우리러보는 단풍이 새색시 머리의 칠보단장(七寶丹粧) 같다면, 굽어보는 단풍은 치렁치렁 늘어진 규수의 붉은 치마폭 같다고나 할까. 수줍어 수줍어 생글 돌아서는 낮 붉힌 아가씨가 어느 구석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도 같구나!

저물 무렵에 마하연(摩訶衍)의 여사(旅舍)를 찾았다. ㉥ 산중에 사람이 귀해서였던가. 어서 오심사는, 상냥한 안주인의 환대도 은근하거니와, 문고리 잡고 말없이 맞아 주는 여관집 아가씨의 정성은 무르익은 머루 알같이 고왔다.

여장(旅裝)을 풀고 마하연사를 찾아갔다. 여기는 선원(禪院)이어서, 불경 공부하는 승려뿐이라고 한다. 크지도 않은 절이 건만, 늙은 승려만도 실로 삼십 명은 됨 직하다. 이런 심산에 노승이 그렇게도 많을까?

- ┌ 무한청산행욕진(無限靑山行欲盡)
- [A] ┌ 백운심처노승다(白雲深處老僧多)

옛글 그대로다.

노독(路毒)을 풀 겸 식후에 바독이나 두려고 남포등 아래에 앉으니, 온고지경(溫故之情)이 불현듯 새로워졌다.

“남포등은 참말 오래간만인데.”

하며 불을 바라보는 문 형의 말씨가 하도 따뜻해서, 나도 장난삼아 심지를 돌우어 보았다 줄여 보았다 하며, 까맣게 잊었던 옛 기억을 되살렸다. 그리운 얼굴들이, 흐르는 물의 낙화(落花) 송이같이 떠돌았다.

- 정비석, 「산정무한」 -

* 목간(木棧) : 나무로 사다리처럼 놓는 길.
 * 철삭(鐵索) : 철사를 꼬아서 만든 줄.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밝히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움직임의 나타내는 어휘를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39.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주위의 단풍과 물아일체가 된 심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 마하연 여사의 퇴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작가와 같은 사대부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 주로 자연에 귀의하여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받으며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바를 시가를 통해 표현하였다. 하지만 (나)와 같이 평민 계층의 전문 객들이 부른 잡가에 나타나는 자연은 주로 아름다운 풍광의 재현을 통해 청중들이 대리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잡가의 자연은 감각적 흥을 극대화한 이상적인 유희(遊興)의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가)의 '공명부귀'는 화자가 관직에 나아가 이를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조그만 이 내 몸'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내 벗인가 하노라'는 화자가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무릉도원이 에 아니냐'는 화자가 자연을 이상향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이상적인 유희의 공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경개 무궁 좋을씨고'는 화자가 아름다운 풍광을 통해 감각적 흥을 느끼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41.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하연 여사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여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백마봉에서 비로봉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다른 여정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화담과 수렴폭을 둘러보았음을 밝히고 있다.
- ④ 객관적인 사실과 자신의 소감을 제시하며 망군대 등정 과정과 망군대에서의 조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마하연 여사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한 말에 공감하며 오늘 여정 중에 발생한 일행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의 ㉣에 들어갈 대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A]는 당나라 승려 영일(靈一)이 지은 한시의 일부로 '한없는 청산 끝나 가려 하는데, 흰 구름 깊은 곳에 노승도 많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글쓴이가 처음에 황혼 무렵 마하연사 주변에서 바라본 단풍의 애상적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저녁별 아래 수레 멈추고 단풍 잎 바라보니(停車坐愛楓林晚), 서리 물든 가을 잎 붉꽃보다 더 붉네.(霜葉紅於二月花)'라는 구절을 인용하려 했다, 퇴고 과정에서 생각을 바꾸어 [A]를 인용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단풍에 대한 묘사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개상의 단조로움을 피해 (㉣)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마하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그곳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려는
- ② 마하연사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알리려는
- ③ 마하연사의 유래와 마하연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절인지 소개하려는
- ④ 마하연사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아 방문하는 데에 고생이 많았음을 나타내려는
- ⑤ 마하연사에 옛날과 달리 종교적 교리를 익히기 위해 애쓰는 승려가 없음을 비판하려는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글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나)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짧게** 혹은
 그네들에겐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접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예겐 없었다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없었다

- 문태준, 「극빈」 -

43.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방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이 계기로 작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오랜만에 들른 고향에 신고 갔던 '구두'를 통해, 고향에 대해 무심한 채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나)는 '열무꽃'에 앉은 '나비'의 모습을 계기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A]: '강물소리'를 듣고 온 '구두'는 '귀'가 '얼어' 있는 화자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서,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군.
- ② [B]: '꿈틀'대는 '부끄러운 축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모습과 연결되고 있군.
- ③ [C]: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허락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은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서, 화자가 '건성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군.
- ④ [D]: '망설'임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서, 화자가 '열무꽃에 내려앉는' '나비'를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고 있군.
- ⑤ [E]: '내줄 곳'과 '내준 무릎'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살아오는 동안' 그것이 '없었'던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는군.

45.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찰랑찰랑'에서 '출렁출렁'으로의 어감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초면'과 '구면'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과거 경험이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짧게짧게'와 '느슨한'의 대비를 통해 동일한 것도 주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편편하게'와 '설핏설핏'을 통해 예기치 않게 조성된 화자의 상황이 대상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까스로'와 '비로소'를 통해 본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④	3	②	4	②	5	④
6	②	7	⑤	8	③	9	④	10	②
11	②	12	①	13	④	14	⑤	15	⑤
16	③	17	①	18	②	19	③	20	③
21	②	22	④	23	③	24	⑤	25	③
26	④	27	⑤	28	⑤	29	④	30	①
31	①	32	①	33	③	34	①	35	①
36	⑤	37	②	38	④	39	⑤	40	②
41	④	42	①	43	③	44	③	45	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린다.
아아 경주역(慶州驛).

이처럼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가면
그 안전하고 잔잔한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천년을
한가락 미소로 풀어버리고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그나라
백성. 고향사람들.

땅위와 땅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연꽃하늘 햇살속에
그렇저렇 사는
그들의 향렬을. 성(姓)받이를.

이제라도
갈까부다.
무거운 머리를
차창에 기대이고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너듯
하룻밤
새까만 밤을 달릴까부다

무슨 소리를.
발에는 족가(足枷)*.
손에는 쇠고랑이
귀양은 영혼의
무서운 형벌을.
이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돌결마다
구릿빛 싯별건 그 무너를.

- 박목월, 「사향가(思鄉歌)」 -

* 족가: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던 형구.

(나)

① 옷을 꺼입듯 한결 또 한결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 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②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겉 많은 물고기들을 두 눈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 제 몸의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자위를
㉢ 아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 박남준, 「따뜻한 얼음」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 시제를 통해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공간의 대립을 통해, 고향을 떠난 화자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공간에서 이상적 공간을 지향하는데, 이상적 공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고향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으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 ① '막막한 지역'에서 '영혼의 나라'를 떠올리는 것에서 현실적 공간에 있으면서 이상적 공간을 소망하는 화자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그나라'에서 '백성'이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볼 수 있군.
- ③ '땅위와 땅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그렇저렇 사는' '그들의' 모습은,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새까만 밤을 달'려서라도 고향에 가려는 화자가 '이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것에서 고향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⑤ '귀양은 영혼'이 '손에는 쇠고랑'을 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에서 화자가 고향을 떠나 현실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군.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다른 대상을 보호하려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자기희생적인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고통 속에서 고립되어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예찬하는 가치를 지닌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디만큼 와았니?”

“신작로까지 와았다.”

이것은 오빠가 생각해 낸 놀이였다.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신작로 길을 따라 재울재울 걷는 동안 배고픔과, 어쩌면 어머니가 아주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있을 수 있어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 이런 문답놀이를 했다.

“어디만큼 와았니?”

“다 와았다.”

그러면 우리는 담장에서 뛰어내려 어슬어슬한 땅거미 속에 솟아오르듯 나타나는 어머니를 향해 뛰는 것이 놀이의 끝이었다. 때로 우리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먼 낯선 곳에서부터 집까지 쉬엄쉬엄 다리를 쉬기도 하며 떡도 사 먹고 한껏 농장을 부리며 수십 차례 왕래를 하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 오빠는 개울에 빠졌다거나 산골이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는 대답으로 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곤 했다. 땅거미는 제법 짙어져 동구 밖의 신작로가 널어 놓은 광목천처럼 희게 떠올랐다. 어디까지 와았니, 어디까지 와았니, 내가 짜증스럽게 잇달아 채근을 해도 오빠는 ‘정자나무까지 와았다’라는 대답을 잇은 듯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떴다.

(중략)

[A] 사실 그때의 일은 빛 바랜 천연색 사진처럼 대단히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로 남아 있어, 대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러하듯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한참 공상이었는지 분명치 않았다. 그런대로 그날 저녁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함과 정다움으로 호젓이 젖어들곤 했다.

오빠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은 풍뎡이를 땅에 묻고 일곱 밤이 지나면 나비가 된다고 했고 또 꽃씨를 먹고 햇빛에 나와 앉아 있으면 뱃속에서 꽃나무가 자란다고 했다. 미역 다발이나 김 따위를 잔뜩 이고 행상을 나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여름 저녁 나는 무논에 돌 떨어지듯 튕뎡뎡 울어대는 뚝뚝 소리들으며 뚝뚝뚝뚝 뚝뚝새, 노래를 불렀다.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하는 구절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부르며 어서어서 오빠가 커서 엄마가 장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 노래처럼 내게 **비단 구두를 사오게** 될 날을 꽤나 절박하게 소원했던 것이다.

속초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오빠의 편지가 회사로 날아온 것은 그저께 오후였다.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외로움을 나누기로 했다는 극히 피상적이고 짧은 내용 끝에 **돈을 부치라**는 추신이 붙은 **엽서를 받은** 후 ㉡ 거의 2년 동안 한 자 소식도 없어 나는 오빠에 관한 소식이라면 부고거나 유서쯤이 아닐까 각오했던 터여서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그러나 **편지**는 유서도 부고도 아니었다. 스물이 갓 넘은 율케는 아이를 낳고 젖물살로 앓아 누웠고 뱃속에서부터 영양이 부실했던 아이는 그나마 젖구경도 못 해 팔 개월이 지나도록 뒤채지도 못한다는 것, 오징어 철이 되면 **틀립없이** 갇을 테니 5만 원만, 아니 3만 원만이라도 급히 보내 달라는 내용이 비명처럼 적혀 있었다.

“시간을 내어 내가 한번 가거나 널더러 다녀가라는 것이 도리

인 줄을 알지만.....” 오빠는 덧붙였다. 직장에 매인 몸이니 굳이 시간을 낼 것은 없고 또한 구차하게 사는 모양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돈만 부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 “**네게 도움은 못 줄망정 괴로운 부탁만 늘어놓는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하는 추신이 붙어 있었다.

오랜만에 쓰는 편지인 탓인지 술을 마신 탓인지 꽤 긴 내용은 술꾼의 주정처럼 두서가 없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니고 있던 **금반지**를 받아 쥐고 나간 이래 나는 오빠에게서 세 번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매번 그렇게 절박했다.

나는 균형을 잃고 흔들거리는 글씨에서, 몇 밤을 망설인 끝에 술기운을 빌려 비로소 엮드려 꼬적거렸을, 자괴지심에 가득 찬 오빠의 얼굴과, 손에 쥔 볼펜이 거북스러울 정도로 물질에 거칠어졌을, 예전에는 유난히 가늘고 곱던 손을 떠올리며 가슴이 막혀 왔던 것이다.

- 오정희, 「겨울 뚝뚝기」 -

(나)

#89. 바닷가

석양에 물든 바닷가. 유봉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철가>를 부른다.

유봉: (♫) 속절없이 가 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헌들 쓸데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내가 가도 여름이 되면.

[B]

송화의 소리가 들려온다.

송화(E.): 아버지의 마지막은 날마다 사철가를 부르시다 어느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내게 더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목숨을 끊으신 것만 같아.

#90. 유봉의 입시가요

송화는 유봉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봉의 뜻을 계속 이야기한다.

송화: 아버지는 어떡하면 내게 더 큰 소리를 심어 주실까 평생토록 그 일만 생각하다 가셨다.

동호, 일어선다.

동호: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못 하는 이유를 누나도 언젠가는 알게 될거야.

그러면서 송화에게 **탄피 반지**를 건네준다.

동호: 이거 내가 탄피로 만든 반지야. 누나 주려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네. 자주 닦아 주지 않으면 녹이 슬어.

동호는 탄피 반지를 쥐어 주고는 그 길로 돌아선다. 붉은 수수밭을 걸어가는 동호의 얼굴. ㉢ 송화의 얼굴. 눈물이 글썽거린다. 탄피 반지를 꼭 쥐는 송화의 손.

동호(E.): 나는 누이와 그런 식으로 헤어진 걸

(중략)

#131. 송화가 일하는 술집 안

술집 문을 열고 술꾼과 동호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 술꾼이 주인 여자에게 소리를 같이 듣자고 청한다.

송화(E.): (♫) 돌아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해영 한푼 두푼 모인 금전

술꾼: (주모를 향해) 아즈망, 우리도 같이 듣게마십.

송화(E.): (♫) 서방님 용돈에 아- 다 나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주인 여자가 방문을 열자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는 송화의 모습이 보인다.

송화: (♫) 이어도사나 아- 이어도사나 요넬 젓엉 어딜 가나

#132. 송화의 집으로 가는 길, 밤

밤길을 동호와 송화가 나란히 걸어온다.
송화(E.): (♂) 진도 바다 아- 글로나 가자
밤길을 걸으며 동호와 송화가 이야기를 나눈다. 밤길에 익숙
치 않는 동호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다.
송화: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다?
동호: 알고 오기는. 누나 어렸을 때 제주 뱃사람한테 얻어 왔다
는 뺨이 생각나서.
송화: 조심해라.
동호: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찾아 헤맸네.

#133. 송화의 집 앞, 밤

송화가 사는 집 앞에 당도한 두 사람. 불이 켜져 있는 집 안
으로 들어간다.
송화: 내가 사는 집이다.
동호: 불이 켜져 있네.
송화: 장님이 무슨 밤낫이 있건나만 사람 사는 집 표시로 늘 켜
두고 지내. 무당이 살던 집인데 내가 세 들어 살아. 들어가자.

#134. 송화의 집 부엌 - 방 안

송화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동호는 부엌으로 난 문 옆에 앉아
서 동호에게 줄 라면을 끓이기 위해 준비하는 송화를 지켜본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두 사람.
(라디오 프로그램 소리)
동호: 판소리는 아주 작파했어? 누나가 이어도 타령이 뭐야?
송화: @ 이어도가 정말 있으면 그 섬으로나 들어갈까 하고 왔는
데 그 소리로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네. 애는 잘 자라냐?
동호: 어, 많이 컸어. "전설따라"네.
송화: 나 그거 안 빼고 들어.
송화의 단정한 책상 위로 라디오와 점자판이 보인다.(책상
C.U.) 라면 냄비에 달걀을 깨서 넣는 송화의 능숙한 손. 동호가
송화에게서 상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간다. 라면을 먹으려다 송
화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탄피 반지를 슬쩍 본다.
동호: 반지가 옛날 그대로네.
송화: 닦지 않으면 녹슨다고 내가 그랬잖아.
송화는 탄피 반지를 만지작거린다. 라면을 맛있게 먹던 동호
가 송화를 올려다본다. 송화는 동호의 시선을 느끼고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군다. 치맛자락으로 버선발을 가리는 송화의 손.(손
C.U.) 다 먹은 상을 물리면서 동호는 중동 이야기를 꺼낸다.
동호: 나 중동 갈려고. 사막에다 수로 놓는 공사판에.
송화: 거긴 왜?
동호: 돈 벌려고.
송화: 돈은 벌어서 어디 쓰게?
동호: 누나 맘 편히 소리 공부할 수 있는 집 한 칸 지으려고. 나
도 누나 때문에 요 점자공부 좀 했네. 누나 심심할까봐 라디
오 연속극 테이프도 모아 놓고, 누나한테
동호의 말을 들으며 송화는 눈물짓는다.
동호(E.): 읽어줄 재미난 책 구한다고 소설도 꽤 많이 읽었네.
글을 먹던 동호, 눈물 흘리는 송화를 올려다본다.

- 이청준, 「천년학」 -

* 작파: 어떤 계획이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어 버림.

34.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3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이야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4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5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3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에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오빠'의 대답을 들은 '나'의 걱정이 내재되어 있다.
2 ㉡에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오빠'로부터 편지를 받은 '나'의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다.
3 ㉢에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나'에게 괴로운 부탁을 하는 '오빠'의 미안함이 내재되어 있다.
4 ㉣에는 자신을 생각해 주는 '동호'와 이별하고 있는 '송화'의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
5 ㉤에는 '동호'와 헤어진 후 자신의 꿈 때문에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송화'의 절망감이 내재되어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서사가 드러나는 갈래에서 서사의 간극은, 서사의 흐름에 따르는 모든 사건들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이의 틈을 의미한다. 그래서 독자는 제시된 사건들 속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의 간극에 숨겨진 인물의 정서나 상황의 지속 및 변화를 추측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

- 1 (가)에서 '비단 구두를 사'울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했던 오빠에게서 '돈을 부치라'는 '엽서를 받은' 것을 통해 오빠에 대한 나의 정서가 변화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군.
2 (가)에서 '금반지'를 들고 나간 오빠가 '틀림없이 갚'겠다고 돈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통해 오빠의 형편이 점차 나아져 가는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군.
3 (나)에서 송화가 '탄피 반지'를 받으며 들은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옛날 그대로'의 상태로 지니고 있는 것을 통해 동호에 대한 송화의 정서가 지속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군.
4 (나)에서 '애는 잘 자라냐'라는 질문에 '많이 컸어'라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 송화와 동호가 떨어져 지냈던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임을 추측할 수 있군.
5 (나)에서 동호가 '점자공부'를 하고 '라디오 연속극 테이프'를 모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송화에 대한 동호의 정서가 지속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군.

37. ㉠과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인물의 외양을 제시하여 인물의 처지가 드러나게 한다.
2 사건의 진실을 밝혀 인물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3 현재의 사건을 언급하여 인물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한다.
4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인물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5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여 인물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나게 한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에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클로즈업(C.U.)과 이펙트(E.)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클로즈업은 인물이나 배경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어 주로 장면의 의미 등을 부각하는 방법이고, 이펙트는 화면에 음향을 삽입하여 장면 속 상황을 전달하거나 장면 전환을 하는 등의 효과를 준다.

- ① #89에서의 이펙트는 #90에서 송화의 대사로 이어지면서 장면이 전환되고 있다.
- ② #131에서의 이펙트는 화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방문 안 송화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효과로 활용되고 있다.
- ③ #132에서의 이펙트는 #131의 송화의 노래와 이어지며 장면이 전환되고 있다.
- ④ #134에서 송화의 책상에 대한 클로즈업은 송화의 일상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⑤ #134에서 송화의 손에 대한 클로즈업은 송화를 원망하는 동호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군이 다음날 또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남자 생각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 오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다. 저녁밥을 먹고 혼자 여관방에 쓸쓸하게 누워 있으니, 남자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마치 병이 날 것 같은지라. 선군은 남자가 신신당부하던 말도 무시하고 또 하인들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 선군이 담장을 넘어 남자의 방에 들어가니, 남자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남군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 이처럼 밤에 왕래하시나이까? 만일 이러시다가 도중에 친금처럼 귀한 몸에 병이라도 나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남군이 끝내 저를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밤에는 제가 남군의 숙소로 찾아가겠습니다.”

“남자는 규중의 처자로 밤에 다니기 어려운데, 어떻게 먼 길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외까?”

“그러하오면 좋은 묘책이 있나이다.”

이어서 남자가 그림을 하나 내주며 말하기를,

“이 그림은 제 용모를 그린 것이오니, 도중에 빛이 변하거나 제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아옵소서.”

하고 서로 이별하려 했다.

이때 마침 상공이 동별당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남자의 방에

서 또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지라. 혼자 말하기를,

“이상하다. 남자처럼 절개 있는 여자가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나리오? 또한 우리 집 담장이 높고 하인이 천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가 마음대로 출입하는고?”

하며 의혹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처소로 돌아가더라.

남자는 시아버님이 문밖에 오신 줄 알고, 또 아이를 달래는 척하며 말하기를,

“아가야 아가야,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자꾸나.”

하며 끝내 남군이 온 자취를 감추었다.

시아버님이 처소로 돌아가신 뒤에 남자가 선군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시아버님께서 남군이 왕래하는 줄 알고 수시로 창밖을 순찰하오니, 어서 바빠 숙소로 돌아가소서.”

하니 선군이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상공이 남자에게 물었다.

“네 남군이 서울에 간 뒤로 혹 도적이 들까 하여 내가 집을 안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네 처소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생각했노라. 그런데 또 어젯밤에 네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니,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사실대로 말하거라.”

이에 남자가 대답했다.

“밤이면 심심하기에 매월을 불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나이다. 제가 어찌 외간 남자를 방 안에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겠나이까?”

상공은 남자의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자기가 분명 남자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지라, 아무래도 이상하여 매월을 따로 불러 물기를,

“네가 요사이 남자의 방에 간 일이 있었느냐?”

하니 매월이 아뢰었다.

“소인이 몸이 피곤하여 요사이 남자의 방에 간 일이 없나이다.”

상공이 더욱 수상히 여겨 매월을 꾸짖어 말했다.

“요 며칠 사이에 밤마다 남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남자에게 물으니 ‘밤에 심심하여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다. 어떤 놈이 남자의 방에 드나들면서 간통하는 것이 틀림없다. 너는 남자의 방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그놈이 어떤 놈인지 꼭 알아오너라.”

이에 매월이 상공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남자의 방을 감시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남자의 방에서 이상한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지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자를 질투하던 첩 매월은 하인 돌쇠와 모의하여, 남자가 몰래 외간 남자와 만난다며 상공을 속인다. 매월의 말을 믿게 된 상공은 분노하여 남자를 심문한다.

매를 맞아 갈기갈기 찢긴 살가죽은 죄 없는 사람이 죽기를 재촉하니, 누명을 벗기 어려운 남자의 신세도 가련하거나 누명을 쓰고 어찌 더 살 뜻이 있으리오?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셨다며 이렇듯 크게 분노하시니, 제가 변명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시옵소서.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내려왔으나 제 절개는 얼음과 눈같이 굳고 깨끗하며, 저 또한 ‘두 지아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알고 있나이다. 게다가 남군과

저는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이 분명하거늘, 제가 어찌 외간 남자와 간통하겠나이까? 아무리 욕례를 갖추지 않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제게 이처럼 흉한 말씀으로 꾸짖으시나이까?” 하며 목 놓아 슬게 우니, 그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더라.

그러나 상공은 남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더욱 꾸짖기를, “제상가의 규중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일이다. 하물며 네 방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찌 너를 범상하게 다스릴 수 있으리오?” 하고 하인에게 호령했다.

“각별히 엄하게 매질하라!” 상공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남자에게 매질하니, 꽃처럼 고운 남자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서는 피가 샘처럼 솟아났다.

남자가 혼미한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 여쭙기를, “사실 그사이 낭군이 두 번 왔다 갔나이다. 낭군이 과거 보러 떠나던 날 겨우 삼 십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는데, 저를 생각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늘, 제가 이리저리 달래어 보냈나이다. 그런데 또 다음날 깊은 밤에 낭군이 돌아오셨기에 제가 억지로 내보냈나이다. 제가 이 일을 숨기고 즉시 아뢰지 못한 것은 부모님의 꾸중이 있을까 두려워서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나이까? 귀신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투기한 탓에 ㉠ 이렇게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아뢰며, 또한 낭군의 얼굴을 어찌 마주할 수 있겠나이까? 차라리 죽어 모르코자 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낭군과 자식을 생각하여 차마 죽지 못하고 땅에 엎어져 기절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숙영낭자전」에는 남성에게는 입신출세가, 여성에게는 정절이 요구되던 당대의 자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당시의 여성들은 폭력적 억압을 당하기도 했는데, 비극적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은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을 꿈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 ① 남자가 '선군을 위로하'고 선군이 슬퍼하며 '속소로 돌아'가는 것에서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군.
- ② 남자가 '상공의 명'에 의해 '밤낮으로' '방을 감시'당하는 것에서 여성들의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남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에서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비극적 삶이 드러나고 있군.
- ④ 선군이 남자와 이별하기 싫어함에도 '과거 보러 떠나'는 것에서 입신출세가 요구되는 남성의 삶이 드러나고 있군.
- ⑤ 남자가 상공의 꾸짖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에서 선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해 고난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물의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②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인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40.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군'은 '남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② '선군'의 요청에 따라 '남자'는 자신의 용모를 그린 그림을 '선군'에게 주었다.
③ '상공'이 '선군'을 꾸중할 것이 걱정되어 '남자'는 '매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④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해 '남자'는 '아이'를 달래는 척했다.
⑤ '상공'은 '매월'이 최근에 '남자'의 방에 가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 '매월'을 불렀다.

42. ㉠에 드러나는 '남자'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황미시절(黃梅時節) 떠난 이별 만학단풍(萬壑丹楓) 느꼈스니
 상스일념(相思一念) 무한스*는 저도 나를 그리련이
 구든 언약 깊은 정을 닦을 어이 이것슬가
인간의 일이 만코 **조물(造物)**이 시긔련지
삼하삼추(三夏三秋) 지나가고 **낙목한천(落木寒天)** 또 되었니
 운산이 머릿쓰니 소식인들 쉬울손가
 덕인난* **긴 한숨의 눈물**은 맺때련고
 흥중의 ㉠ 불이 나니 구회간장 다타간다
 인간의 물로 못끄난 불이라 업것마는
 너 가삼 턴우는 불은 ㉡ 물노도 어이 못끄난고
 즈네 사정 너가 알고 너 사정 즈네 알니
 세우스창(細雨紗窓) 저문 날과 소소상풍 송안성*의
 상스몽(相思夢) 놀라 썩여 퍽퍽키* 싱각흐니
 방춘화류(芳春花柳) 호흔 시절 강누스찰 경기돏츠*
 일부일 월부월의 운우지락(雲雨之樂) 협흡할제*
 청산녹수 증인두고 **츠싱빅년 서로 밍세**
 못보와도 병이 되고 더디 와도 성화로세
 오는 **글발** 가는 **스연** 즈즈획획 다정턴이
 엇지타 한 별니가 역여조기(怒如調飢) 어려웨라*

- 이세보, 「상사별곡(相思別曲)」 -

* 상스일념 무한스: 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한함.
 * 덕인난: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
 * 송안성: 기러기 울음 소리.
 * 퍽퍽키: 어떤 일에 대처할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게.
 * 강누스찰 경기돏츠: 누각과 사찰의 경치를 따라.
 * 운우지락 협흡할제: 남녀 간의 정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화목하게 지낼 때.
 * 역여조기 어려웨라: 임을 그리워하는 정이 간절하여 마음이 힘들.

43.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상사별곡」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토로하며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또한 이별의 원인과 이별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를 외적 요인으로 돌리려 한다.

- ① 화자는 ‘인간의 일’이나 ‘조물’과 같은 외적 요인을 임과 재회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떠올리고 있다.
- ② 화자는 ‘삼하삼추’와 ‘낙목한천’이라는 계절의 흐름을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긴 한숨’과 ‘눈물’을 통해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는 ‘츠싱빅년’을 ‘서로 밍세’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임과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오고 가는 ‘글발’과 ‘스연’을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4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과거를 잊게 하는 소재이고, ㉡은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② ㉠은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화자의 상황 해결이 어려움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소재이고, ㉡은 화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소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자연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9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③	2	⑤	3	③	4	⑤	5	⑤
6	③	7	③	8	④	9	④	10	⑤
11	④	12	①	13	②	14	④	15	①
16	④	17	⑤	18	③	19	③	20	⑤
21	①	22	⑤	23	④	24	⑤	25	⑤
26	④	27	③	28	①	29	②	30	③
31	③	32	③	33	④	34	①	35	⑤
36	②	37	④	38	⑤	39	②	40	④
41	⑤	42	①	43	②	44	⑤	45	②